metro®

메트로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제3026호 www.metroseoul.co.kr

나경원 부활 7·30재보선 서울동작을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30일 캠프 사무실에서 당선된 뒤 엄지 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현 파란 7·30 재보궐선거 순천·곡성 국회의원에 당선이 유력시 되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30일 오후 전남 순천시 새누리당 전남도당 선거사무소에서 꽃다발을 받고 밝게 웃고 있다. /뉴시스

민심은 심판 대신 안정 택했다

7·30 재보궐선거

이정현 호남에 새누리 깃발·나경원 동작을 당선
여 11곳서 승리 '예상밖 압승'…과반 의석 확보
손학규·임태희·김두관 등 거물 낙선…야 '참패'

◆11 대 4, 與 압승-野 참패…野 내홍 직면

총 15개 선거구, 역대 최대 규모의 '미니 총선'으로 실시된 7·30 재보궐선거는 새누리당의 압승,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서울 동작을(나경원), 경기 김포(홍철호), 수원병(김용남), 수원을(정미경), 평택을(유의동), 충북 충주(이종배), 충남 서산·태안(김제식), 대전 대덕(정용기), 울산 남구을(박맹우), 전남 순천·곡성(이정현), 부산 해운대·기장갑(배덕광) 에서 승리를 거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 광산을, 경기 수원정, 전남 나주·화순,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4곳에서만 당선자를 냈다.

이에 새누리당은 본전인 9석 이상인 11석을 가져와 총 158석의 안정 의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 파문'에 이어 야권 연대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참패했다. 이로써 야당은 새정치연합 130석, 정의당·통합진보당 각각 5석, 무소속 2석에 그치게 됐다.

야당이 참패함에 따라 당은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며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천 파동 등을 계기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에 대한 반발기류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보선 참패 책임론과 함께 조기 전대론 등이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곡성, 이정현 당선 '최대 이변'

특히 새누리당은 불모지였던 전남 순천·곡성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를 의원으로 배출하면서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첫 이변을 연출했다.

이날 초반에는 박빙의 승부가 전개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예상을 뒤엎고 이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번 선거의 '최대 이변'으로 기록됐다.

이 당선인은 새누리당 창당 후 처음으로 호남에서 당선됐다. 청와대에서 권력의 핵심부를 맛봤던 이 후보는 출마 선언 당시 1년8개월간의 국회의원을 통해 확실한 '예산 폭탄'이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단언해 민심을 흔들었다.

◆전략공천 불구 무너진 거물들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의 '여의도 귀환' 시나리오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꾸준히 야권의 '잠룡'으로 이름을 올리던 손 고문은 이번 패배로 차기 대권을 겨냥한 행보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장을 지냈던 3선 중진 출신 임태희 후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그는 사실상 '적진'인 경기 수원정(영통)에 전략공천돼 원내 입성을 노렸지만, MBC 보도국장 출신 정치신인 박광온 새정치연합 후보에 졌다.

김포에 출마했던 김두관 후보도 정치 신인인 홍철호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했다. 경남지사까지 역임한 거물급 김 후보는 여권 안방인 김포에서 한때 홍 후보를 맹추격하는 저력을 보였지만 끝내 고배를 마셨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올 수시모집 24만여명
정원의 65% 선발…9월 5일 시작

2015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의 65.2%를 뽑는 수시모집이 9월 5일에 시작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학 197개교의 '201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30일 발표했다.

4년제 대학 198개교 중 수시 모집을 하는 197개 대학은 전체 인원의 65.2%에 해당하는 24만1448명을 수시로 뽑는다.

작년과 비교해 모집 인원은 9772명, 모집 비중은 1.2%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수시가 도입된 2002학년도 이후 첫 감소세다.

정부의 대학별 고사 및 적성 시험 폐지·축소 유도 정책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수시 모집인원이 줄게 됐다.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모두 20만3529명(84.4%)으로 지난해 16만3042명(64.9%)에서 4만명 가량 급증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67개교에 7230명으로, 총 수시모집 인원의 3.0%에 달했다.

지난해 두 차례 나눠 진행됐던 원서 접수가 올해는 9월 6~18일 한 차례로 통일된다. /윤다혜기자 ydh@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국과수 보고 받는 야당 세월호 국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찾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검 관련 브리핑을 받기에 앞서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점포·통장 없는 은행시대

은행 방문 없이 대출을 연장하는 직장인, 카카오톡으로 자녀 용돈을 보내는 학부모, 스마트폰 유심으로 전자 서명을 대신하는 대학생.

본격적인 스마트폰 금융이 열린다. IT와 금융 장벽이 무너지면서 은행은 종이 통장을 없애고 스마트폰 유심 칩은 공인인증서를 대신한다. 모바일 메신저에는 금융 결제 기능이 탑재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8월 1일 종이 통장이나 카드 발급 없이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모바일 통장'을 업계 최초로 출시한다. 현재는 은행 창구와 자동화 기기에서 돈을 넣고 빼려면 종이 통장 또는 카드를 지참해 서명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다.

민주홍 우리은행 스마트채널 전략부장은 "모바일 뱅킹이 단기간의 계좌 조회·이체 기능만 제공한 것과 달리 모바일 통장은 거래 내용을 10년까지 기록하고, 메모장·가계부뿐 아니라 각종 입·출금과 대출 연장까지 가능하다"며 "증가하는 스마트폰 이용률 속에서 모바일 통장이 종이 통장을 대체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동종 업계 참여가 늘어나면 은행 비즈니스가 확대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 대신 유심 칩으로

스마트폰에 내장되는 유심 칩은 금융 거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공인인증서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지난 15일 통신사는 금융권과 함께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칩 기반의 공인인증서 서비스인 '스마트인증'을 공동 출시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금융 거래 시 본인 인증을 위한 전자 서명 기능을 하지만 보안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C와 USB는 해킹 위험성이 크고 보안토큰은 보안성이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일반인에게 낯선 한계가 있었다.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유심 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심 칩 인증 방식을 보안 1등급 매체로 지정한 바 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유심 칩과 공인인증서를 일체화하면 외부 복제가 불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뱅킹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각 통신사 앱 장터나 구글플레이에서 스마트 인증을 검색해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이용료는 한달에 990원이다.

우리은행의 모바일 통장 '우리 스마트 통장'의 시험구동 화면 /우리은행 제공

점포방문 없이 대출연장
카톡으로 자녀 용돈 송금
스마트폰 유심 전자서명
우리銀 모바일통장 출시

◆가을부터 카카오로 송금·결제

모바일 금융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모바일 메신저는 전자 결제 시장에 보폭을 넓히고 있다.

국내 모바일 메신저 업계 1위인 카카오는 금융 서비스 '카카오 간편 결제'와 '뱅크월렛카카오'를 초가을에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 간편 결제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놓고 상품 금액 결제 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거래가 이뤄진다. 카카오는 LG CNS의 전자 결제 시스템 '엠페이'를 채택해 공인인증서 없는 전자 상거래를 구현할 방침이다. 모바일 송금 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는 카카오톡 등록 친구끼리 하루 최대 10만원을 보낼 수 있게 한다. 은행권은 상용화를 위한 수수료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모바일 메신저 금융 거래의 보안 강화를 위해 금융 기관과 철저하게 준비 중"이라며 "각 서비스의 정확한 출시일은 미정이지만 3분기 중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희·백아란기자 unique@metroseoul.co.kr

통신사 보도자료 전쟁 유감

기자 수첩
장 윤 희
<경제산업부 기자>

통신사들은 보도자료에서도 전쟁을 벌인다.

통신 3사는 매일 아침 언론사에 자사의 신규 상품 출시와 서비스 소식을 보도자료로 알린다. 어느 소식이 더 많이 알려지느냐에 따라 통신사의 자존심은 등락을 거듭한다.

제헌절이었던 지난 17일 SK텔레콤과 KT는 보도자료 배포를 놓고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다. 시작은 KT였다. 이날 오전 8시50분께 KT는 어린이 위치정보 서비스 'U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보도자료를 보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호자에게 자녀의 위치가 수시로 통보된다.

오후 3시가 넘어서 SK텔레콤도 'U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보도자료를 보냈다. SK텔레콤 측은 "U-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KT만의 단독 출시가 아니라 정부와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양사가 협력해 만든 서비스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KT가 합의없이 먼저 자료를 냈다고 항의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서비스가 통신사의 상도덕 문제로 비화되는 순간이었다.

씁쓸한 일은 일주일 전에도 벌어졌다. 지난 24일 유럽 5개국 13개 매체 기자들이 우리나라 통신 업계를 방문하는 행사가 열렸다. 유럽 기자단은 통신 3사를 고루 방문하고 다양한 IT 현장을 둘러봤다. 하지만 모 업체는 해외 사절단이 마치 자신의 회사만 견학한 것처럼 발표해 잡음을 빚었다. 급기야 경쟁사는 '이날 유럽 기자단은 다양한 기업을 견학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기업이 자사 중심으로 홍보하는 일은 당연하다. 하지만 혼선을 주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사실을 축소 전달하거나 경쟁사를 간과하는 일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

뉴스&뉴스

퇴역 해군 초계함 콜롬비아에 무상 양도

●우리나라에서 퇴역한 해군 초계함이 콜롬비아에 무상 양도됐다.

30일 해군은 퇴역 초계함 안양함(1200t급)을 콜롬비아 해군에 양도하는 기념 행사를 진해 해군기지에서 거행했다고 밝혔다. 1983년 12월 해군 함정으로 취역해 우리 영해를 수호하다가 2011년 9월 퇴역한 안양함은 외국에 양도되는 첫 초계함급 군함이 됐다.

북, 南주민 시신 1구 판문점 통해 인계

●북한에서 발견된 남측 주민 시신 1구가 30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으로 넘어왔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함께 발견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인적 사항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해본 결과 이 시신은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61세 남성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지난 6월24일 인천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갔다가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北 미사일' 북한제재위 소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음달 5일(현지시간) 북한제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제재위원회의 90일 보고 규정에 따라 소집됐다. 북한제재위원회는 회의에서 지난 5월20일 안보리 보고 이후 북한의 제재 위반 사항과 관련국의 이행 내용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보선 투표 행렬 재보궐선거일인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해경 123정장에 영장

"퇴선 안내했다" 허위일지 작성 혐의

광주지검 수사전담팀은 30일 함정일지를 훼손·조작한 혐의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 하지도 않은 퇴선 안내 방송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한 것처럼 허위로 다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지 내용 조작에 관여한 다른 승조원이 있는지도 조사하는 한편 소극적이고 부실한 구조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구로역 화장실서 화재

200여명 대피… 지하철·KTX 운행 한때 중단

서울시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30일 화재가 발생해 한때 중단됐던 지하철과 KTX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다.

이날 불은 오전 10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역사와 옆 건물을 잇는 2층 통로 승무원 화장실에서 발생, 소방차 40여대가 동원돼 20분 만에 꺼졌다. 화재로 중단된 열차 운행도 다시 재개됐다.

연기가 선로와 대합실로 퍼지면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과 역사 내 시민 200여명이 모두 밖으로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이 소방관 116명과 차량 37대를 동원해 진화했으나 이 여파로 선로 신호기에 이상이 생겨 구로역을 지나는 전동차와 KTX 상하행선 운행이 한때 중단돼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불이 난 통로로 역사와 연결된 건물은 승무원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장실 옆 배전반에서 전기 합선이나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수신호를 이용해 오전 10시 56분께 상하행선 전동차 운행을 재개했다. KTX도 오전 10시 46분께 하행선, 오전 10시 52분께 상행선 열차 운행을 각각 재개했다.

/윤다혜기자

"8월엔 물난리·폭염·승강기사고 주의!"

소방방재청, '재난종합상황 분석'

8월에는 물난리와 폭염, 승강기 사고를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30일 발간한 '8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서 8월에 유의해야 할 자연재난으로 호우·태풍·폭염을 꼽았다.

지난 10년간(2004~2013년) 발생한 자연재난은 총 174건으로, 282명의 인명피해(사망·실종)와 7조3199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났다.

이 가운데 28건(16.1%)이 8월에 발생, 인명피해 44명(15.6%)과 재산피해 1조6033억원(22%)이 났다.

폭염 피해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온열질환 사망자 35명 중 21명이 8월에 집중됐다.

지난 2008~2012년에 발생한 사회재난 144만여 건 중 8월에 발생한 사고는 12만1218건으로 8.4%를 차지했다.

사회재난 가운데는 물놀이 안전사고 피해가 컸다. 최근 5년간(2009~2013년) 총 24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가운데 137명(57.1%)이 8월에 사고를 당했다.

승강기사고도 잦은 편이다. 2008~2012년의 승강기사고 현황을 보면 8월에 발생한 승강기 사고는 60건으로, 월평균 52건보다 훨씬 많다.

방재청 관계자는 "8월에는 호우·태풍·폭염과 같은 자연재난과 물놀이·벌쏘임·뱀물림·예초기사고 등 사회재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유병언 자녀 등 상속인 재산 가압류 인용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후 정부가 그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다시 제기한 재산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아내인 권윤자(71)씨를 비롯해 섬나(48)·상나(46)·대균(44)·혁기(42)씨를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청구채권액은 예금채권 등을 포함한 2000억원이다. /윤다혜기자

인천공항 북적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등이 탑승 수속을 위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태풍 '나크리' 북상중, 남해안 영향권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가 북상하면서 한반도 남해안 지역에 간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나크리'는 중형급 약한 태풍이지만 중심 부근에서는 초속 21m의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나크리는 시속 20km 안팎의 속도로 서북서진해 31일 밤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 다음달 1일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나크리는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캄보디아 꽃의 한 종류다. /윤다혜기자

서울시 내년 참여예산사업 352개 확정

서울시는 동작구가 제안한 고압 감전사고 없는 안전한 보행로 조성 사업 등 352개 사업을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결정했다.

시는 25~26일 열린 '참여예산한마당'에서 시민투표단이 시민, 자치구가 제안한 560개 사업을 심사한 뒤 투표를 통해 시 예산 500억원을 지원받을 352개의 사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투표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53.4%)을 보인 사업은 동작구가 제안한 안전한 보행로 조성 사업이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352개는 지난해 223개보다 129개 많다. 이에 따라 사업 1개당 평균사업비도 작년 2억2600만원에서 올해 1억4200만원으로 적어졌다.

352개의 참여예산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500억원은 2015년 서울시 예산안에 포함돼 내년에 집행된다. /윤다혜기자

동해안서 잡힌 '고래상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은 최근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리 앞바다의 연안 정치망에서 길이 4.9m, 5m 크기의 '고래상어' 2마리가 잇따라 잡혔다고 30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공단 제공

퇴사 직원에 "임신했냐"도 성희롱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혐오감 줄 수 있어"

퇴사를 하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냐'고 물어보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나쁜 의도에서 물은 말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씨는 관리과장으로 사업장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징계위의 해고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반도체 관련 회사의 생산라인 관리과장으로 일하던 한씨는 여직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퇴직을 앞둔 여직원 A씨에게 임신했냐고 묻는 등 하급 여직원들을 성희롱을 해 2012년 4월 해고 처분을 받았다.

한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명문대 보내줄게" 꼬드긴 논술강사 기소

서울동부지검은 명문대에 보내주겠다며 학부모들을 꼬드겨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유명 논술학원 강사 연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연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6번에 걸쳐 학부모 A씨로부터 명문대 입학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총 3억9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연씨는 A씨에게 '입학사정관에게 추천을 부탁하겠다', '학교발전기금이 필요하다'는 등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씨는 앞서 학부모 2명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다혜기자

재외동포 학생들 '독도는 우리땅'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대학생 초청연수' 참가 학생들이 독도알리기 플래시몹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령회사 차려 대포통장 판매한 일당 적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로 총책 박모(43)씨를 구속하고 공범 우모(4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차린 유령회사를 통해 대포통장 1300여개를 개설, 불법 도박 사이트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5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인터넷 대출을 하는 것처럼 광고를 올려 문의를 해온 사람들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유인했다.

이들이 차린 것으로 확인된 유령회사만 159곳으로, 상대적으로 사업자등록 절차가 수월한 일반음식점이나 의류업체 등으로 가짜 법인을 만들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가 30~4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서면 근로계약 작성 안 하면 과태료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1일부터 9월30일까지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위반 사항을 일제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4시간 편의점,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4000여곳이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와 최저 임금액을 잘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적발하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조현정기자 jhj@

포항 영일만 관광단지 조성

학교법인 덕성학원이 경상북도 포항시에 대규모 복합휴양시설을 조성한다.

덕성학원은 최근 경상북도·포항시와 '포항 영일만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덕성학원은 모두 5416억원을 투입해 덕성학원 소유인 포항시 남구 동해면, 구룡포읍, 호미곶면 일원 299만7000㎡(약 90.6만평) 부지 위에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2014 하계 영어 캠프' 개최

경희사이버대학교 미국학과가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 205호에서 2014학년도 하계 영어 캠프를 실시한다.

이번 하계 행사는 '다시 시작하는 영어: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주제로 미국학과 이주연 교수가 강의를 진행한다.

누구나 홈페이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국학과 전화(02-3299-8666)로 문의 가능하다.

'채동욱 스폰서 의혹' 고교동창 징역 3년 선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계좌에 2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스폰서' 의혹을 받은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에서 어음 17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는데도 자신의 업무를 위배해 거액을 횡령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 계좌에는 횡령금뿐 아니라 아파트 매도금과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돈이 섞여 있었다"며 "지인에게 보낸 돈이 횡령금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는 케어캠프 자금담당 이사로 일하던 2009년 11월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윤다혜기자

암흑천지 가자지구

이스라엘 맹폭에 유일 발전소 파괴… 육해공 무차별 폭격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암흑에 휩싸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맹폭을 가해 가자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화력발전소가 완전히 파괴됐다.

현재 가자지구는 외부의 전력공급선이 대부분 끊긴 상태다. 이런 가운데 내부 화력발전소까지 가동이 중단, 가자 주민의 고통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발전소는 가자지구 전력 공급의 3분의 2를 담당해 왔다.

2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진입하는 이스라엘 탱크병이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가자 당국은 전력 부족으로 양수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물 사용을 줄이라고 당부했다. 가자지구 에너지 담당 관리인은 "모든 것이 불탔다"면서 "발전소를 복구하려면 최소 1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육상, 해상, 공중에서 무차별 폭격을 퍼부었다. 이스라엘군은 무기저장고와 로켓발사대 등 가자지구 110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는 디젤유 300만ℓ가 저장된 연료탱크가 포탄에 명중되면서 화염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검은 연기가 몇시간 동안이나 하늘을 뒤덮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이번 폭격은 지난 8일 양측 간 교전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다. 이날 가자 북부 제발리아 난민촌 인근에서는 이스라엘군의 탱크 포격으로 일가족 10명이 숨지는 등 하루에만 가자 주민 128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자택과 방송국 2곳, 재무부 청사 등 주요 시설도 폭격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와 중부에 54발의 로켓탄을 발사했지만 미사일 방어시스템 '아이언돔'에 요격되거나 공터에 떨어져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했다.

가자 보건부는 22일째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는 1200명을 넘었고 부상자는 7000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에서는 군인 53명과 민간인 3명 등 5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이스라엘 텔아비브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스라엘 유대인 중 95%가 가자지구 공격이 정당하다고 답했다. 공격 수준이 과하다는 응답자는 4%에 그쳤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바비큐 주문하는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한 바비큐 식당에서 백악관에 편지를 보내온 캔자스시티 주민 4명과 만남을 갖기 전 바비큐를 주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中 신장에서 또 '칼부림 테러'

수십명 사상 차량 31대 파손…경찰 "사전 계획된 것"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28일(현지시간) 테러가 또 발생해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9일 현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사처 현에 칼로 무장한 무리가 나타나 경찰서와 정부청사 사무실을 공격했다.

이 가운데 몇몇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시민을 공격하고 차량 여러대를 망가뜨렸다. 이로 인해 수십명의 위구르족과 한족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 또 차량 6대가 불에 탄 것을 포함해 모두 31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경찰은 이들 무리 가운데 수십명을 총으로 쏴 사살했다. 경찰은 이번 테러가 미리 계획된 것을 확인했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테러가 위구르족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과 관련돼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신장자치구에서는 위그르족 독립 세력의 테러가 증가하고 있다. 사처 현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에도 테러가 있었다. 9명이 칼을 휘두르며 경찰서를 공격했고 이 중 8명은 경찰이 사살했다. 신장자치구의 수도인 우루무치에서도 지난 4월과 5월 잇따라 폭탄 테러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신장자치구 외부에서도 올해 들어 테러가 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윈난성 성도이자 휴양도시인 쿤밍의 철도역에서 무차별 테러 사건이 발생, 17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조선미기자

'젖소 보트' 보셨나요?

metro Russia

직접 제작… 이색 축제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의 한 호수에서 직접 만든 보트를 타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이색 보트 축제가 열렸다.

대회에 참여한 18개 팀은 자신만의 노하우와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든 보트를 타고 호수 중간에 떠 있는 부표로 향했다. 심사위원들은 창의력과 속도, 보트의 외관을 평가했다.

대회 관계자는 "이 축제는 겨울 썰매 대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작했다"며 "겨울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썰매를 타는 것처럼 여름에는 직접 만든 보트를 타는 대회"라고 설명했다.

대회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보트를 타고 '전력질주'했지만 몇 팀은 아쉽게도 부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심지어 출발하자 마자 곧바로 보트가 가라앉는 비극을 경험한 팀도 있었다. 하지만 참가자들과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결과에 상관없이 이색 보트 대회를 즐기는 분위기였다.

플라이제츠 팀의 '드미트리'는 "대회에 참가해 모두 웃고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하늘을 나는 보트 '산타크로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카메라도 설치하고 패널로 날개도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호수 속으로 가라앉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가족 팀은 판넬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대한 젖소 모양의 보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젖소 보트'를 제작한 올레그 벨로무트스키는 "두 대의 보트로 골격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덧붙여 젖소 모양의 보트를 만들었다"며 "딸 율랴와 대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큰 보트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트가 너무 큰 탓에 결국 침몰했다"며 "그래도 가족 모두가 함께한 즐거운 추억"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알료나 보브로비치 기자·정리=조선미기자

폐지 모아 '사회 재활' 도와요

metro France

프랑스 파리에서 길거리 폐지를 수거해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특별한 방식으로 환원하는 협회가 눈길을 끌고 있다.

2년전 한 정보처리기사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 단체는 매일 파리를 돌며 각종 폐지와 나무상자를 모은다. 이후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많아진 이곳은 친환경과 연대라는 두 가치에 기초해 협회를 운영한다.

협회에서 일하는 엠마는 "이곳에 한 번 오면 나무상자를 구입하기 위해 계속 방문하게 된다. 버려진 나무상자들을 재활용해서 다시 새것처럼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 복귀를 꿈꾸는 사람 다섯명 정도가 매일 돌아가며 협회에서 일을 한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폐지와 상자를 줍거나 회사를 방문해 대량으로 나무상자를 받는다. 하루 3시간에서 8시간까지 일을 하고 시간당 15 유로(약 2만6000원)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곳에서 나무상자를 구입하면 무료로 집까지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세발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배송이 되며 파리 북부지역에서 센느강 인근까지 원하는 양의 박스 주문이 가능하다.

/오렐리 사로 기자·정리=정주리 인턴기자

market index <30일>

 코스피 2082.61 (+20.64)

  코스닥 541.81 (−0.01)

 금리(국고채 3년) 2.51 (−0.01)

 환율(원·달러) 1024.20 (변동없음)

캠핑용품 최대 50% 할인
홈플러스는 다음달 6일까지 전국 139개 점포와 인터넷쇼핑몰에서 캠핑용품 100여 종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네이버 '웃고' 다음·네이트 '게걸음'

포털 3사 2분기 실적

NAVER Daum NATE

유난히 부침이 심했던 포털 업계의 2분기 실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다음과 네이트는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며 네이버 실적은 31일 공개된다. 다음과 네이트가 현상 유지에 그친 것과 달리 네이버는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의 2분기 매출은 1389억원으로 4.8%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66억원으로 30.2% 감소했다. 다음의 영업이익 하락은 시장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번 다음의 실적은 오는 10월 '다음카카오' 출범을 앞둔 마지막 단독 실적이기도 하다. 포털 다음과 모바일 플랫폼 카카오는 지난 5월 합병 계획을 발표했으며 다음달 27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거쳐 10월 1일 정식 합병될 예정이다. 신주는 10월 14일 상장된다.

시장은 다음의 카카오 합병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정재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음은 다음카카오가 출범하는 10월에 약 5000억원 수준의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준비는 순항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가 출범하더라도 다음보다 카카오의 성장이 우세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공영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카카오의 고성장에 주목해야 한다"며 "카카오 실적은 매분기 고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며 올 하반기 카카오 광고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28%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2년째 적자를 기록 중인 네이트는 2분기 실적에서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2분기 매출은 24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했으며 영업손실은 3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 규모는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이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사업부 분리를 통해 얻은 결과다. 이 과정에서 SK컴즈 얼굴이었던 '싸이월드'도 떠나보내야 했다. SK컴즈는 하반기 실적 개선을 기대했다.

업계 점유율 70%대로 포털 공룡으로 불리는 네이버의 2분기 실적은 31일 발표된다.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전년동기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증권의 경우 네이버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6526억원과 1872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4.4%, 34.5% 늘어난 수준이다. 전통적으로 봄·여름이 포털 업계 성수기인데다 브라질 월드컵까지 겹쳐 네이버 이용률과 광고 수익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해외 인기와 일본 증시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호재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KT 브랜드 사칭 스미싱 강경 대응

KT는 자사 브랜드를 사칭한 스미싱 유포자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스미싱 피해로부터 고객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30일 밝혔다.

KT는 최근 별다른 내용 없이 링크가 걸린 인터넷주소와 함께 '올레닷컴(olleh.com)' 문구를 포함한 스미싱 유포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 같은 악성코드 유포자에 대해 KT는 ▲고객 혼돈으로 인한 피해 유발 ▲영업 방해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olleh' 표장과 'olleh.com' 도메인에 대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내걸었다.

KT는 99% 이상의 유사 스미싱 문자를 차단했으며, 중대한 고객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민 KT 마케팅부문 온라인운영담당 상무는 "위법 행위의 철저한 조사로 피고소인을 엄중히 처벌해 브랜드 사칭 스미싱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한 좋은 판례를 남겨달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코스피 '또 연중 최고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날보다 20.64포인트(1.00%) 오른 2082.61로 마감했다. 2011년 8월 2일(2121.27) 이후 2080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거침없는 하이킥, 코스피 2080선

외국인 12일 연속 사자 행진

코스피가 거침없이 올라 2080선까지 탈환했다. 연일 20포인트 안팎으로 상승하며 나흘 연속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장중에는 2090선에도 터치했다.

이에 장중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사상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외국인 보유 시총도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30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64포인트(1%) 오른 2082.61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에는 2093.08까지 오르며 '2100선'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다.

코스피는 지난 25일 2033.85에서 28일 2048.81로 뛰고서 29일 2061.97, 30일 2082.61로 급등세를 이었다.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날 외국인은 12거래일째 '사자' 행진을 보이며 5982억원 순매수했다.

전날까지 외국인과 쌍끌이 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리던 기관은 이날은 장중 사다팔다를 거듭하다가 100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개인은 5785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코스피의 질주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의 전체 시총도 오후 한때 1250조3000억원을 돌파해 2011년 기록을 넘어섰다.

외국인 보유 시총도 445조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날 코스피 거래량은 3조3828만주, 거래대금은 6조4264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거래대금은 지난 23일부터 6거래일 연속으로 하루 거래대금 4조원을 웃돌았다.

이는 올 들어 월별 하루평균 거래대금인 3조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윤지호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새 경제팀의 주주친화정책 방침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코스피 대표주 매수에 나서면서 한국전력, 삼성전자, 현대차, KT 등 대형주가 순차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8월 내 코스피지수가 2100선을 넘어 전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하반기 대졸 신입 평균 연봉 2355만원

공채는 8월에 가장 많아

올 하반기에 입사하는 대졸 신입사원들은 평균 2355만원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올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확정한 기업 94개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초임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2355만원(기본상여 포함, 인센티브 제외)으로 집계됐다.

2200만~2400만원이 22.3%로 가장 많았다. 2000만~2200만원(17%), 1800만~2000만원(13.8%), 2400만~2600만원(8.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형태별로는 '대기업'(평균 3140만원), '중견기업'(2986만원), '중소기업'(219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차이가 1000만원 가량 되는 셈이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 예정 시기는 8월이 31.9%로 가장 많았다. 7월(25.5%), 9월(21.3%), 10월(10.6%), 11월(6.4%), 12월(4.3%) 순이었다.

채용 분야는 영업영업관리(30.9%,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제조·생산(27.7%), 연구개발(22.3%) 분야의 채용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용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는 '생활신조, 가치관'(19.2%)이 1위를 차지했다. '지원동기'(14.9%), '성격·장단점'(12.8%), '팀워크 발휘 경험'(9.6%), '목표 달성, 성과 경험'(8.5%), '입사 후 포부'(6.4%), '성장과정'(5.3%), '리더십 능력 발휘 경험'(5.3%) 등이 뒤를 이었다.

/이국명기자 kmlee@

연금복권520 제161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3조	296762
		4조	689486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886789
4등	100만원	각조	54303
5등	2만원	각조	926
6등	2000원	각조	23,87
7등	1000원	각조	1,5

출처 : 나눔로또 공식홈페이지(www.nlotto.co.k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비핸즈카드 제공(제품번호 : BH2137)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 …
올해도 '축의금 품앗이' 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 늘어

서울 강남구에 거주 중인 김경원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지, 해는 넘어가지… 걱정이 크죠."

하미숙씨(56세 · 서초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내년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하태경씨(61세 · 용산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딸은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 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결혼은 내가 원하는 상대와 해야죠"

대기업 연구원 서승필씨(30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 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급한 마음에 아무 회사나 선택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 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 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 · 매칭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2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GAYEON
SAMSUNGCARD

가연 삼성카드 출시
■행사기간 : 2014년 7월 1일(화) ~ 12월 31일(수)
■가연결혼정보 성혼컨설팅 20% 현장할인
■가연웨딩 웨딩패키지 200만원 이상 결제 시 50만원 결제일 할인(청구할인)

※카드 이용 전에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약관을 통해 자세한 이용조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랭키닷컴 2011, 2012, 2013 기준〉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 2012, 2013 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4년 연속 및 '대한민국 중소 · 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 브랜드 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 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칭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 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입증받기도 했다. 또한 가연은 대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을 총망라한 제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준 높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휴사 미혼직원을 위한 결혼지원 서비스 및 '미팅파티' 를 통해 만남의 장을 열고 있다. 서울 테헤란로에는 만남부터 결혼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17층 전관을 결혼 서비스에 특화 시킨 '가연타워' 가 있다. 고객의 편의와 만족을 극대화하는 업계 최대규모의 단일 사옥은 가연의 '고객중심 경영철학' 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랭키닷컴** – 랭키순위란? 최근 12주간 랭키 툴바 6만명 패널의 인터넷 사용정보를 자료로 User Session Visits 기준으로 집계한 순위입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행복한 결혼,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의 인연을 찾는 일이죠"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연결혼정보㈜박영빈 팀장은 '행복한 결혼은 노력과 의지의 결과이며, 결혼정보회사도 노력의 주요한 일환' 이라고 말한다.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요즘은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부터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계세요. 그 이유는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선 성격부터 가치관 등 다양한 기준들을 세워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도움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의 회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일반 직장인부터 전문직, 공무원 등 결혼정보회사 역시 다양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흔히 직업 좋고 연봉 높은 분들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찾는 만큼 꼭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니까요.

▲ 가연결혼정보(주) 박영빈 팀장

◆결혼정보회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결혼정보회사의 존재 이유는 회원님께서 원하는, 그리고 회원님께 꼭 맞는 배우자를 찾아 인연을 맺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삶과 가정에 결혼을 통해 행복을 불어넣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어요. 성혼 커플들을 볼 때마다 커플매니저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결혼도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전문적인 커플매니저가 도움을 드린다 해도 스스로가 준비가 되고 노력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마음가짐만 굳건하시다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충분히 아름다운 인연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커플매니저와 무료상담하기

가연결혼정보㈜에서는 연중무휴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전화, 방문, 온라인 문의 등 고객의 편의에 따라 원하는 상담이 가능하며 전담 커플매니저가 지정되어 '맞춤 상담' 을 제공한다. 한편 가연은 본사와 동일한 직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무 료 상 담 전 화
080-586-5000

추석 상품권 패키지 판매 롯데백화점은 9월 7일까지 전 점포에서 추석 상품권 패키지 9000 세트를 한정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제공

빅5 건설사, 올 실적 회복

내년 수익구조 개선 기대도 커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거둔 건설사들이 올 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상장 5대건설사가 상반기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작년에 이어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중 건설업계 맏형 격인 현대건설은 상반기 매출 7조9934억원, 영업이익 4672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이 쿠웨이트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UAE 사브 해상원유 처리시설 공사의 본격 진행으로 작년 상반기에 견줘 26.2% 증가했다. 영업이익 역시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적인 원가절감 추진 노력으로 23.2% 늘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매출 7조2342억원, 영업이익 2403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25.4%, 63.8% 성장했다.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 캐나다 온타리오 신재생 발전사업 등 해외 사업장의 공사 본격화와 수익 반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 2176억원의 이익을 올리고도 연간 1119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던 대우건설은 올 들어 2225억을 벌었다. 전년 동기보다도 2.2% 소폭 증가한 것은 물론, 지난 하반기 부진을 말끔히 씻어낸 실적이다. 매출은 4조5838억원으로 5.6% 늘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기에도 활발하게 분양사업을 전개해온 주택·건축부문이 상반기 회사의 성장을 견인했다"며 "국내 주택공급 1위 업체로서 하반기 주택경기가 살아난다면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작년 동기에 견줘 6.8% 줄어든 4조6469억원의 매출과 39.9% 빠진 141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그러나 작년 4분기 3195억원 적자라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대림산업 측은 "별도기준 부채비율이 2분기 기준 106.5%, 순차입금 3627억원으로 대형건설사 중 가장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GS건설은 상반기 7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2분기 111억원의 이익을 내며 7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신규수주액이 7조846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6% 증가했다.

GS건설 관계자는 "2013년 말 293%까지 올라갔던 부채비율이 상반기 243%까지 개선됐으며, 파르나스호텔 매각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재무 안정성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무엇보다 올해 이뤄진 양질의 해외수주로 내년 수익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사기 피해예방 아이디어 주세요

금감원, 9월30일까지 공모전

금융당국이 날로 교묘해지는 금융·보험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인 대상 공모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관련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영상, 웹툰 등 콘텐츠는 물론, 금융당국의 민원센터 알리기에도 팔을 걷어올렸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사기와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폐해, 근절 필요성과 피해 예방을 주제로 동영상(애니메이션 포함), 웹툰, 포스터 공모전 접수를 받는다.

보험 분야만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인과 보험종사자를 구분해 공모작을 접수한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11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된다.

금감원에서는 공모전을 통해 사기 피해에 대해 관심을 불러 모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병기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공모전에 응모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관련 지식에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불만이나 피해 상담, 불법사금융 피해, 금융범죄 신고 등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민원·상담전화 서비스인 '1332'의 새 이름을 31일까지 공모한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까지 500여명이 1332 새 이름 공모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소비자가 응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공모작 수상작은 실제 금융·보험 사기 피해예방 홍보에 활용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김현정기자

벌써 햅쌀이… 38년만에 이른 추석을 맞아 이마트가 때이른 햅쌀을 출시, 30일 행사 도우미가 햅쌀을 선 보이고 있다. 이번 조생종 품종의 햅쌀은 전남 고흥에서 수확한 것으로 2kg에 8800원이다. /연합뉴스

제조업 체감 석달째 악화

국내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세월호 참사 이후 석달 연속 악화돼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제조업의 7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4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월호 사고 직후인 5월 79로 꺾인 BSI는 지난달 2포인트, 이달 3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회복 조짐은커녕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수출기업보다는 내수기업의 BSI 하락 폭이 컸다. 중소기업 BSI는 지난달 72에서 69로 3포인트, 내수기업은 78에서 73으로 5포인트나 떨어졌다. 모두 연중 최저치다. /김현정기자

주택대출 총부채상환비율 최대 70%

다음 달 1일부터 완화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되는 가운데 DTI는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고정금리와 거치기간 1년이내 원금 분할상환을 함께 선택하면 10%포인트까지 대출여력이 늘어난다.

집단대출과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새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각 금융기관에 내려 보냈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을 계기로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 50%, 인천·경기 지역에 60%가 각각 적용되던 DTI는 1일부터 60%로 단일화된다. 대상은 신규 취급분이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때는 종전 기준 적용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세부시행 방안에서 고정금리에다가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으면 각각 5%포인트의 비율을 더 적용받아 최대 70%까지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전 금융기관을 합한 1억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새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DTI는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에 적용되나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양평·여주 등과 접경지역, 안산시 대부동 등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만 40세 미만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구입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DTI 산정방식 기준은 고용노동통계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소득 증가율로 바뀌었다.

금감원은 새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 가산방식 등을 통해 LTV, DTI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대출 취급을 금지했다.

또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확인 등을 통한 채무상환 능력을 확인해 대출심사에 활용토록 했다. 금융기관간 무리한 대출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 심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김현정기자 hjkim1@

30대 그룹 CEO 평균 2.6년 재임

3분의 2가 임기 못 채워…효성·미래에셋 '가장 짧아'

30대 그룹 상장사 CEO의 평균 재임 기간이 2.6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경영인 3명 중 2명은 3년 임기도 채우지 못했고, 6명 중 1명은 재직기간이 1년에도 못 미쳤다.

그룹별로는 LG·현대중공업 등 11곳이 상법상 임기인 3년을 넘겼고, 삼성·현대차 등 18곳은 3년 미만이었다.

30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00년1월1일 이후 신규 선임됐다 퇴임한 30대 그룹 상장사 전문경영인(대주주 일가 제외)의 재임기간을 조사한 결과, 576명의 CEO가 평균 2.63년을 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CEO 평균 재임기간이 가장 긴 곳은 대우조선해양이다. 그룹내 유일한 상장사인 대우조선해양에 2000년 이후 선임된 CEO는 2명이었고, 평균 임기는 5.34년(각각 4.61년, 6.07년)이다.

동국제강은 3.98년으로 2위를 기록했고, LG(3.94년)→OCI(3.74년)→한진(3.38년) 순으로 '톱5'를 차지했다. 신세계(3.35년), 대림(3.24년), LS(3.23년), 현대백화점(3.22년), 현대중공업(3.20년), 대우건설(3.09년) 등도 상법상 등기임원 임기 3년 이상을 채웠다.

반면 CEO 재임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효성이었다. 효성은 5개 상장 계열사에서 17명의 전문경영인이 평균 1.70년 재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에셋과 CJ도 1.79년과 1.97년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어 코오롱(2.11년), 현대(2.21년), 현대차(2.26년), KT(2.32년), GS(2.38년), 포스코(2.46년), 두산(2.49년), 금호아시아나·동부(각 2.58년), 롯데(2.64년), 삼성(2.66년), SK(2.76년), 한화(2.78년), 영풍(2.84년), 에쓰-오일(2.94년) 등은 3년에 못 미쳤다.

30대 그룹 576명의 역대 CEO 중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인사는 367명으로 전체의 63.7%였다. 1년도 못 돼 그만둔 CEO도 6명 중 1명꼴인 102명(17.7%)이나 됐다.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전문경영인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효성이었다. 17명의 CEO 중 14명(82.4%)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현대차가 53명 중 42명(79.2%)으로 2위였고, 한화·KT·CJ(각 75%), 영풍(72.7%), GS·미래에셋(각 71.4%), 코오롱(70%) 순으로 높았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안전하게 각질 관리하세요' 슈퍼모델 혜박이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숄(Scholl) 벨벳 스무드 익스프레스 페디' 국내 론칭행사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특송 수입 15조↑…사상 최대

대한상의 통계집, 해외직구 폭발 증가세가 원인

최근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각종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해외특송을 통한 수입액이 15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외특송이란 국내 택배처럼 페덱스·DHL 등의 글로벌 물류회사가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거해 국내 수요자가 있는 곳까지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30일 발간한 '2014 국내외 물류산업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특송을 통한 수입액은 전년대비 9억3000만 달러 증가한 15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해외특송을 통해 들여온 수입물량 건수도 전년 대비 25.3%, 최근 5년새 2.3배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인 1772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해외직구의 폭발적 성장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집에 따르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물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6.5%씩 늘며 지난해 1100만건을 돌파했다. 수입액도 사상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어섰다.

해외특송에서 차지하는 물량비중도 꾸준히 늘며 인터넷 쇼핑물량은 전체 특송물량의 62.9%를 점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소액이긴 하지만 인터넷 쇼핑물량은 해년마다 200만~300만건씩 증가하며 해외특송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거래가 폭증하는 만큼 해외특송 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유럽 수입맥주 균일가전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을 맞아 롯데마트가 유럽산 수입맥주 6종(500ml/1캔) 가격을 1500원 균일가에 선보이는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유럽산 수입맥주 균일가 행사는 동일사이즈의 국산 맥주보다 15%가량 저렴한 수준이리고 롯데마트 관계자는 밝혔다. /연합뉴스

유료방송 하반기 현안 처리 '몸살'

DCS·합산규제·지상파 재송신료 등 과제 '수두룩'

유료방송업계가 올 하반기 산적한 현안 처리를 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관련 고시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이번에 관보 게재를 앞두고 있는 ICT 특별법 관련 고시는 36조 '신속처리' 조항과 37조 '임시허가' 조항이다.

ICT 특별법 고시 제정 이후 KT스카이라이프가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기술 신청을 하게 되면 미래부는 이를 검토해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마무리 짓게 된다. DCS는 접시 안테나 대신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받아 각 가정에 인터넷망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스카이라이프는 DCS가 기존 방송과 다른 새로운 융합기술인 만큼 미래부가 ICT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합산규제 법안까지 연결돼 유료방송업체 간 갈등도 일고 있다. 케이블업계를 중심으로 비 KT 업체들은 현행 전체 유료방송가구의 3분의 1을 넘을 수 있다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위성방송에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간 서비스 방식에는 차이가 다소 있으나 대부분 동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간 벌어지는 재송신료 문제도 하반기 지속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케이블업계와 IPTV업계는 지상파에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송신료를 지불하고 있다. 지상파3사는 최근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유료방송업계에 추가 재송신료 지불을 요구했다. 월드컵 중계를 위한 천문학적 비용의 중계권료로 적자를 재송신료로 메우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두고 유료방송업체들이 지불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자 지상파 측은 현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조가 ▲임금인상 ▲협력업체 계약기간 확대 ▲고용승계 등을 주장하며 벌이는 장기 농성도 하반기 해결해야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업계가 올 하반기 각종 현안 처리로 떠들썩할 전망"이라며 "대부분 몇 년간 장기화된 현안인 만큼 정부 지원과 업계간 협력 속에 현명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삼성전자, 미국 TV시장 '부동의 1위'

역대 최고 점유율…제품 차별화·마케팅 효과

삼성전자가 북미 TV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30일 시장조사기관 NPD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북미 시장에서 35.6%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하며 반기 점유율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초고화질(UHD) TV 시장에서도 올 상반기 53.2%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북미 시장에 UHD TV를 처음 선보인 뒤 5개월만에 점유율 49.8%를 달성한 후 꾸준히 점유율을 높이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뛰어난 화질과 디자인, 미래 표준 대응이 가능한 삼성 UHD TV만의 제품 차별화 요소·주요 유통과의 매장 전시 협업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바탕이 됐다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다.

60인치 이상 초대형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도 상반기 45.7%의 매출 점유율로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북미 TV 시장에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면서 평판 TV에 이어 '커브드TV, UHD TV도 삼성'이라는 공식을 재차 증명했다"며 "9년 연속 세계 TV 시장 1위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밝혔다. /이재영기자

롯데건설 '신동백 롯데캐슬에코'(왼쪽)와 신동백 롯데캐슬에코 안에 조성된 야외골프장.

풍부한 녹지율에 관리비 절감까지…

용인 '신동백 롯데캐슬에코' 주목

사회적으로 친환경·자연주의 바람이 거센 가운데 롯데건설 '신동백 롯데캐슬에코'가 에코아파트 대표로 나섰다. 풍부한 녹지율은 기본이고, 단지 내 적용된 각종 에너지 절약 기술로 관리비 절감까지 가능하다.

◆대단지 프리미엄 가득

경기도 용인시 중동 650번지 일원에 위치한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는 지하 3층, 지상 17~40층, 26개동, 전체 2770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다.

용인에 들어선 상당수의 아파트가 중대형인데 반해,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199㎡의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84㎡와 99㎡ 등 30평대 중형 세대가 1878가구로 전체의 67.8%를 차지한다.

대단지 아파트인 만큼, 인근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화된 커뮤니티시설을 자랑한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30~50m 규모의 6홀 미니형 파3 야외골프장과 25m 4개 레인 실내수영장을 동시에 갖췄다.

클럽하우스, 6m 18개 타석 연습장과 20m 롱퍼팅그린, 스크린골프, 피칭룸을 갖춘 대규모 실내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 800여㎡ 크기의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개인작업이나 동호회 활동이 가능한 스튜디오, 200석 규모의 대형독서실과 북카페가 조성된다.

또 단지 내 상가에는 국내 정상급 영어교육기관인 삼육어학원(SDA)이 입점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우선등록권, 수강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혁신설계도 눈에 띈다. 21개의 다양한 평면이 적용돼 같은 단지의 같은 주택형이라도 방 개수와 공간배치가 달라진다. 아울러 단지 중심부 랜드마크 4개 동에 테라스하우스를 설계해 고품격 입면 디자인을 연출했고, 각 동 최상층에는 펜트하우스를 배치했다.

◆관리비 줄여주는 에코아파트

'에코'라는 단지명에 걸맞은 주거환경도 제공된다. 먼저 풍부한 녹지공간을 위해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했다. 단지 중심으로 축구장 1.5배 크기의 중앙공원과 2.5km 순환산책로, 1km의 자전거길을 조성했다. 친환경자연체험학습장, 생태연못가든, 과수원과 원두막도 들어섰다.

특히 롯데건설이 국내 최초로 개발해 특허권을 취득하고 있는 '공동주택용 마이크로 수력발전 시스템'이 설치됐다.

이 시스템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상수도 공급관에 소형 터빈발전기를 설치해 물의 낙차에너지와 수압을 전기로 변환시켜 사용하도록 개발한 것. 낙차가 작아도 설치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실제 9kw, 3.5kw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가 매달 2520kw 수준으로 단지 내 부대시설에 사용돼 관리비를 줄였다.

이밖에 '지열냉난방 시스템'과 '전열교환식 환기시스템'도 적용됐다. 또 태양광 가로등, LED조명을 이용한 미디어폴, 냉난방 성능이 우수한 유리창과 단열재, 주방 빌트인가전용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일괄 가스·조명 차단스위치 등의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도입됐다.

지난 2013년 6월 입주에 들어가 현재 마감된 주택형을 제외한 일부 가구에서 계약금 5%로 계약이 가능하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과로와 업무상 재해

■칼럼 박민성 변호사

최근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인지에 대해서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업무가 질병의 원인이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 또는 사망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 또한,『망인에 대한 패혈증의 주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발병 직전의 계속된 공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 기능이 저하된 것이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패혈증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경험칙상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질병 또는 사망의 원인이 업무의 과도함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추단될 정도로 입증하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먼저 사실관계의 확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진 02)592-2224

'확 바뀐' 스카이TV 새 옷 입는다

김영선 대표 "스카이라이프와 통일성 강조"

"KT, 올레tv, 스카이라이프와 연계해 언제 어디서나 스카이TV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김영선 스카이TV 대표이사는 3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스카이TV 리브랜딩 설명회를 통해 "스카이라이프와의 통일성을 강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카이TV는 국내 유일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자회사로, 올해 장사 10주년을 맞은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다. KT스카이라이프가 지분 74%, KT가 지분 14%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국내 디지털 방송에 첫발을 내딛고 총 7개 채널을 보유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을 했지만 아쉬움도 없지 않았다"며 "채널명이 담고 있는 콘텐츠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채널별 정체성이 명확한 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이 같은 고민은 새로운 브랜드이미지(BI)와 채널명 변경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

스카이TV는 이날 전면 개편된 '스카이라이프'의 브랜드 이미지와 연계한 새로운 BI를 선보였다. 공개된 BI는 정제된 방송품질을 상징한다. 서체에 적용된 색상인 붉은색과 회색은 신뢰, 변화, 혁신의 의미를 담았다.

채널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보유하고 있는 채널명도 확 바꿨다. 현재 운영 중인 채널엔(N), 채널엠(M), 채널티(T) 등은 다음달 1일부터 스카이 드라마, 스카이 스포츠, 스카이 트래블 등으로 변경된다.

김 대표는 "스카이TV는 스카이라이프와 함께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각 채널 편성을 대폭 변경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장르별 양질의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희기자 ssh814@

스카이TV가 3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채널 리브랜딩 설명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사회자 서경석, 영화평론가 김태훈, 레인보우의 노을, 김영선 스카이TV 대표이사, 이정민 방송본부장이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스카이TV 제공

화려한 싱글족의 '나홀로 만찬' 확산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미기자 seonmi@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친구가 없는 애처로운 '왕따'로 낙인 찍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귀찮은 일행 없이 '나 홀로 만찬'을 즐기는 화려한 싱글족이 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전했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스티븐 벡터는 싱글족을 위해 1인석을 마련한 것은 물론 8가지 공짜 시식 메뉴까지 준비했다.

벡터는 "손님이 혼자 식당에 들어 오면 어떤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싶은지 물은 뒤 최대한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서 조용히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원할 경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만찬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당 컨설턴트인 애론 앨런은 "미국 성인 7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다"면서 "1인 가구의 증가로 나홀로 만찬을 즐기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앨런은 싱글족이 늘어난 데는 몇가지 사회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다. 직장 생활 등 사회 활동으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1인 가구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영국 런던은 도시 전체 가구의 약 30%가 1인 가구이고,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는 50%가 넘는다. 이들은 친구나 친척과 종종 식사를 하지만 혼자 식사를 할때가 많다. 세계 주요 도시의 고급 식당은 이들을 모시기 위해 정성을 쏟고 있다. 싱글족이 고가의 음식을 먹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기 때문이다. 자녀를 둔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기 만족을 중요시하는 전문직 싱글족은 식당의 '0순위 고객'이다.

미국 샌디에고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반 플라워는 싱글족을 공략하기 위해 '요리쇼'도 마련했다. 초대형 테이블에서 음식의 대향연을 펼쳐 고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플라워는 요리쇼를 보면서 다양한 시식 메뉴를 맛볼 수 있고 요리사와 조리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고 귀띔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식당은 특별히 제작한 '1인용 식탁'으로 싱글족을 사로잡았다.

식당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는 싱글족이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며 "대중과 단절된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그는 "고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으로 매일 저녁 예약률 100%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런던과 베를린, 뉴욕에 지점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BBC

1인석에서 8가지 요리 공짜 시식… 세계 고급 식당 고객 모시기 경쟁

'디폴트 위기' 아르헨 재무 뉴욕 도착… 협상 돌입 13년 만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앞둔 아르헨티나의 악셀 키실로프 재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뉴욕에 도착했다. 이날 키실로프 장관은 미국 법원이 지정한 중재자와 회의에 들어갔다.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30일 자정(한국시간 31일 오후 1시)까지 아르헨티나 정부가 원금과 이자 15억 달러(약 1조5382억원)를 헤지펀드에 전액 상환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AP 연합뉴스

"환율은 시장에… 정부 개입 최소화"

IMF 통화·금융 정책 진단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대해 환율 결정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또 주장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IMF는 29일(현지시간) '대외부문평가보고서'(ESR)에서 국가별 통화·금융 정책을 진단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IMF는 "환율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정부의) 개입은 어느 쪽 방향으로건 과잉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선에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2012년 4.3%에서 지난해 6.1%로 상승했다며 이는 적정치(2%)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과거에도 수차례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도 환율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거나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IMF는 함께 발표한 '스필오버(파급효과) 보고서'에서 미국과 영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신흥 경제국의 성장 둔화와 합쳐져 향후 5년간 세계 경제성장률을 2%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선미기자

자국산업 보호? 사이버 전쟁?

중국, MS 반독점법 조사… 외국기업 긴장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일까. 사이버전쟁의 연장선일까.

중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나서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이 베이징의 MS 중국 본사와 상하이, 광저우, 청두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해 서류와 e메일, 컴퓨터·서버 데이터 등을 압수했다고 30일 보도했다.

SAIC는 "MS가 지난해 6월 중국 기업들이 윈도와 오피스에 대해 제기한 끼워팔기와 인증암호로 인한 호환성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규정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독점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중국 경찰은 지난 5월 영국계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을 상대로 부패 스캔들 조사를 벌였다. 결국 의사와 병원에 뇌물을 주도록 영업사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이 회사 중국지사의 전직 대표를 체포했다.

이밖에 중국 당국은 퀄컴, 애플 등 외국계 거대기업에 대해서도 반독점법 위반과 부정부패 등을 이유로 잇따라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는 외국 기술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각종 법률을 동원해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미·중 간 사이버전쟁의 연장선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이 중국군 현역 장교 5명을 해킹 혐의로 기소한 뒤 중국에서는 미국 IT기업을 상대로 무차별식 반격을 가하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마이크로소프트 북경 매장. /로이터

갑작스런 해외여행도 앱만 있으면 걱정 끝!

항공권·숙박·렌트카 한눈에 조회 실시간 통역, 가이드 필요없어

올 여름 휴가를 해외에서 보내려고 했던 신입사원 박태현(30) 씨는 아직까지 숙박은 물론 항공권조차 예약하지 않았다. '방콕'이나 하라고 주변으로부터 핀잔을 받고 있지만 박씨는 해외여행에 대한 꿈을 아직 접지 않았다. 아이폰·아이패드 등에 '여행 도우미' 애플리케이션만 내려받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비행기를 타고 이국적인 해변을 거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카이스캐너.

아이트랜스레이트.

풋패스.

◆예산 맞춰 여행지도 선정

일단 여행 예산만 정하면 갈 수 있는 해외 여행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스카이스캐너(Skyscanner)' 앱을 터치하고 예산 범위를 입력하면 갈 수 있는 지역을 알려준다. 실시간 항공권 조회를 통해 가장 저렴한 항공사까지 알려준다.

현지 숙소와 렌트카 예약도 앱으로 끝낼 수 있다. '카약(Kayak)' 앱에서는 수백 개의 여행 관련 사이트를 비교해 일정에 가장 알맞은 숙소, 렌트카 등을 알려주고 예약까지 할 수 있다.

갑자기 떠나 숙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호텔 투나잇(Hotel Tonight)' 앱이 유용하다.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호텔에서 당일 예약이 가능한 곳을 알려준다.

◆종이 항공권도 필요없어

귀찮은 짐꾸리기도 앱의 도움을 받으면 손쉽다.

'여행준비앱'을 터치하면 세면도구는 물론 여권, 상비약, 서류, 의류 등 짐을 챙기면서 빠트리기 쉬운 여행 용품을 세심하게 챙겨준다. 음성 안내를 들으면서 준비물을 챙기는 기능도 들어있어 편하다.

자주 여행을 떠난다면 '트래블 리스트(Travel List)' 앱이 유용하다. 지역별로 리스트를 만들어 해당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불러올 수 있다.

항공권도 종이로 인쇄할 필요가 없다. '트립잇(TripIt)' 앱은 항공권 e티켓, 호텔 예약 정보, 현지 식당 예약, 입장권 등의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보관해 준다.

◆현지 언어로 음식주문도 OK

갑작스런 여행 때문에 현지 가이드를 구하지 못해도 걱정없다. '풋패스(Footpath)' 앱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하고 대강 가려는 길을 손가락으로 그으면 정확한 경로와 실제 걸어야 하는 거리, 높낮이까지 보여준다.

외국어 실력이 부족해도 '아이트랜스레이트(iTranslate)' 앱을 이용하면 현지인과 대화도 가능하다. 아이폰 등에 대고 말만하면 영어·프랑스어·일본어 등 42개국 언어로 실시간 통역해준다.

어려운 식당 메뉴나 여행지 설명을 만나면 '프리즈모(Prizmo)' 앱을 켜고 사진으로 찍으면 된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곳에서도 원하는 언어로 바로 번역해준다.

식당·영화관·커피샵·병원 등도 '어라운드미(AroundMe)' 앱으로 찾을 수 있다. 현재 위치부터 목적지까지의 경로도 보여준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SKT "최대 1Gbps 쏜다" SK텔레콤은 새로운 이종망 묶음 기술인 'MPTCP'(Multi-Path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MPTCP는 인터넷 관련 기술 표준화 기구인 IETF에서 정한 국제 표준 기술로 최대 1Gbps 속도 구현이 가능하다. /SKT 제공

"렌즈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올림푸스 사이트 오픈

카메라 사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렌즈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다.

올림푸스한국은 렌즈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올림푸스 렌즈 어드바이저'(lensadvisor.olympus-imaging.com)를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곳에서는 원하는 사진 촬영에 필요한 최적의 렌즈를 알려준다. 직관적인 UI(사용자환경)로 전문가는 물론, 렌즈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렌즈의 화각 샘플사진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물이나 음식과 같은 피사체나 야간촬영과 같은 상황별 샘플 이미지를 제공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가이드도 받을 수 있다. /이국명기자

스미싱·개인정보 피해는 휴가 없다

안랩, PC·스마트폰 보안수칙 발표

휴가철 들뜬 마음을 노리는 보안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자칫 방심하면 1년에 한번뿐인 휴가가 악몽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30일 안랩이 발표한 '휴가철 보안수칙'을 지키면 개인·조직의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안사고가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우선 개인 PC 사용자는 ▲자극적인 제목의 e메일과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과 SNS에 첨부된 파일과 링크 실행 자제 ▲운영체제와 인터넷 브라우저 등 프로그램 버전 최신으로 유지 ▲백신 프로그램 설치와 자동업데이트,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등을 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자도 ▲문자 메시지, SNS 등에 포함된 URL 실행 자제 ▲모바일 전용 보안 앱과 스미싱 탐지 앱 설치, 자동 업데이트 ▲'알 수 없는 출처'의 허용 금지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보안 담당자는 ▲휴가 전 사내 모든 PC 또는 서버의 운영체제,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상황 점검 ▲휴가 기간에 서비스하지 않는 시스템을 조직 내 네트워크로부터 차단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유관부서와 공유 등에 힘써야 한다.

한창규 안랩 시큐리티대응센터장은 "여름 휴가 기간을 노린 스미싱,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기본적인 보안수칙을 지켜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휴가 기간에 신종 악성코드나 오진 사례, 가짜 백신 등을 발견한 사용자는 안랩 웹사이트 내 바이러스 신고센터(www.ahnlab.com/kr/site/securitycenter/virus/virus.do)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국명기자

"명상 통해 긍정적 사고 키운다"

번잡한 생각 속, '나'를 찾는 치열한 사투

템플스테이 체험기

편안한 휴식,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힐링'의 시간이길 바랐다. 템플스테이는 가톨릭 신자에게 낯설지만 호기심의 대상이었고, '여름철 가볼 만한 휴양지'로도 적당했다. 개인적으로는 속세를 떠나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여겼다. 결과적으로 1박2일 일정의 사찰 체험은 그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힐링이라기 보다는 나를 찾는 사투에 가까웠고 시간이 짧게만 느껴졌다.

템플스테이는 1700년 한국불교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는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전국 100여개 공식지정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다. 예불·발우공양·참선·다도·108배 수행·스님과의 대화·문화재 답사 등 해당 지역과 사찰의 특징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템플스테이는 외국인 참가자를 위한 20여개의 외국인 템플스테이 전문사찰을 지정하기도 했다. 방문한 곳도 그중 하나인 속리산 보은 법주사다.

◆속리산과 법주사

우리나라에는 많은 고찰과 대찰이 있지만 그 중 법주사는 신라시대 이래로 금산사, 동화사와 함께 3대 법상종 사찰로 자리매김했다. 사찰에는 국보 제55호 팔상전과 높이 33m에 이르는 동양 최대 미륵불 입상인 금동미륵대불이 있다.

특히 팔상전은 해외에서도 이름이 나있다. 전통문화 해설사의 말에 따르면 스페인 출신의 한 청년이 배낭여행 중 저녁 늦은 시간 초췌한 모습으로 이곳에 도착해 팔상전을 찾았다. 스님이 묻자 '브루스리(고 이소룡)'가 생전에 마지막 작품을 팔상전을 배경으로 찍었다는데 공개되지 않아 찾아왔다고 한다.

해발 1058m인 속리산은 기암 절벽이 많기로 유명하다. 사찰체험 중 속리산 길을 가볍게 오르는 '숲속 걷기 명상' 프로그램이 있다. 햇빛이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에도 숲속은 나무 그늘로 선선했다. 취사를 할 수 없는 곳이라서 중간에 보이는 물줄기나 '세심정' 계곡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공양과 108배

'절밥은 맛이 없다'는 선입견이 보기 좋게 깨졌다. 고기 반찬은 아니지만 무려 8가지가 넘는 찬은 하나하나가 일품이다. 먹을 만큼만 덜어 먹는 '뷔페식' 시스템과 '묵언' 식사는 맛을 음미하는 데 좋은 장치가 됐다. 싹 비워야하는 '발우공양'은 아니지만 먹은 그릇을 스스로 씻을 수 있도록 세척공간이 마련돼 있다.

다담(茶談) 모습. /조계사 제공

새벽 3시, 사찰은 남들보다 일찍 아침을 맞는다. 청아한 목탁소리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는 것으로 둘째 날 일정은 시작됐다. 예불에 이어 108배 시간을 가졌다. 108배는 매 절마다 참회하고 사람이 짓는 온갖 업으로 인한 번뇌를 소멸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최근에는 다이어트의 한 방법으로도 알려졌다.

108배를 마친 뒤 법복은 땀으로 흥건했다. 몇몇의 방석은 눈물로 젖기도 했다. 30분 남짓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마다 경건함은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스님

템플스테이의 일정은 보관 스님과의 다담으로 마무리됐다. 스님은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명상을 꼽았다. "한 곳에 집중하는 명상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긍정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자신의 소중함을 바로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의 현실적인 질문과 스님의 답변이 이어졌다. "불자가 아닌 분들에게 불상은 하나의 사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며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성(진리)을 깨우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인연설의 소중함에 대해 들려줬다. "그러니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해 질 수 있다. 지금 현재의 내 모습에 집중하고 그것을 온전히 느낀다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 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템플스테이 패밀리 브랜드 '아생여당' 지정사찰

▲아아(我我): 지치고 외로운 순간에 다시 힘을 얻는 위로의 여행
-김제 금산사: 063-542-0048
-보은 법주사: 043-544-5656
-성주 심원사: 054-931-6886
-영동 반야사: 043-742-7722

▲생생(生生): 몸과 마음을 모두 채우는 건강한 여행
-동해 삼화사: 033-534-7676
-영암 도갑사: 061-473-5122
-산청 대원사: 055-974-1112
-양평 용문사: 031-773-3797

▲여여(如如): 성내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참된 나를 만나는 비움의 여행
-예산 수덕사: 041-330-7789
-해남 미황사: 061-533-3521

▲당당(堂堂): 꿈과 희망을 찾아 내 안의 용기를 불어넣는 당당한 여행
-양양 낙산사: 033-672-2417
-인제 백담사: 033-462-5565
-용인 법륜사: 031-321-3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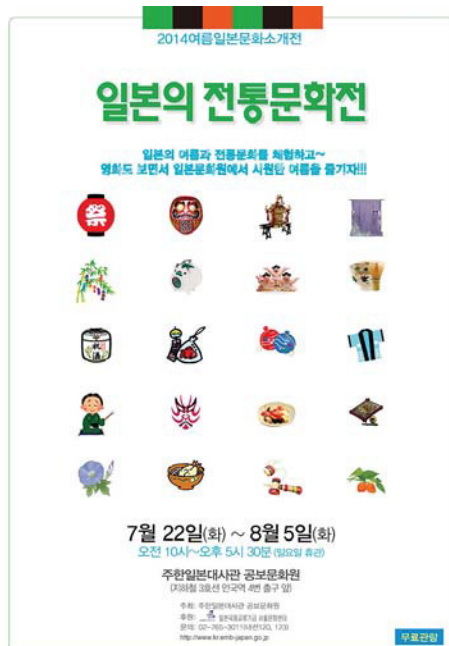
'2014 여름 일본문화 소개전'

7개 섹션으로 나눠 전시

일본 현대문화의 기틀이 된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전시회 '2014 여름일본문화소개전'이 오는 8월 5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열린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일본의 전통문화를 섹션별로 나눠 소개한다. '섹션1 기모노'에서는 후리소데, 남성용 기모노 등 일본 전통의상을 전시하고 '섹션2 다도'에서는 다도구·다도 관련 사진을 보여준다. '섹션3 마쓰리'에서는 일본의 축제인 '마쓰리'의 인형과 각 지방 마쓰리 풍경을 담은 사진, 그리고 신을 모신 가마 '미코시'의 모형을 만나볼 수 있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제공

'섹션4 전통미술-우키요에·공예'에서는 여름을 맞아 설화 속의 요괴를 표현한 우키요에 5점을 전시한다. 전통 공예품·민예품·완구 등과 함께 일본의 전통미술인 다색판화 '우키요에'가 나와있다. 이외에도 스모 인형과 스모 경기 모습이 담긴 우키요에, 스모 경기 프로그램 등을 전시하는 '섹션5 스모'가 있다. 영상물을 통해 일본 전통 예능을 접해보는 '섹션6 전통예능-가부키·노·분라쿠·라쿠고' 일본음식과 사케에 관련된 각종 소품을 볼 수 있는 '섹션7 음식과 술' 등이 소개된다.

'일본의 여름 체험공간'이 마련돼 '긴교스쿠이(금붕어 건지기)' '요요쓰리(요요풍선 낚기)' '다나바타(칠월칠석) 체험' 등 여름축제에서 즐기는 일본의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초등학생 일본문화체험교실, 일본영화 상영회 등의 프로그램도 열린다. 행사기간 중 상설 운영되며 코너별로 1인 1회 무료체험이 가능하다.

전시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일요일은 휴관이다. 문의: 02)765-3011(내선120, 123)

/정혜인기자 hijung0404@

여름방학 '라바의 영어 체험전'

지난 4일 첫 선을 보인 '못말리는 라바의 English Playground'가 여름방학을 맞아 관람객을 모으며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인기 애니메이션 '라바'를 테마로 한 국내 최초의 어린이 영어체험전으로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에서 오는 9월 14일까지 열린다. 1200여평 규모로 준비된 이번 체험전은 영어전문교육기업인 '정상JLS'의 영어 콘텐츠를 도입한 영어존(English Zone)과 다양한 놀이시설이 구비돼 있는 놀이존(Play Zone)으로 구성됐다.

체험전은 소인(만 2세~17세 미만)은 2만원, 대인(만 17세 이상) 1만원이며 현장구매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http://www.larvapla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학철기자

국가인증받은 한옥서 하룻밤을…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한 한옥체험 숙박업체(한옥스테이) 101개소를 선정했다.

한옥스테이는 서비스 품질과 숙박객 만족도를 증가시켜 국내외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한옥체험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선정된 101개소는 관광공사가 전국의 인증 신청 한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심사를 실시해 뽑힌 곳으로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한옥스테이는 총 340개소다.

관광공사는 인증된 업체에 인증 현판을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옥체험 숙박업체로 선정된 업체 목록은 한옥 정보 웹사이트인 한옥스테이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hsoul38@

‘체험여행’으로 무더위 날리세요!

관광공사, 8월에 가볼만한 곳 추천

본격적인 더위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산과 바다, 그리고 계곡 등 유명한 피서지는 이미 발 디딜 틈도 없이 피서객으로 가득하다. 이에 한국관광공사가 색다른 체험을 하면서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8월의 가볼 만한 곳을 추천했다.

◆캠핑과 승마·골프를 동시에!

충남 서산시 팔봉면 삼원레저타운에 가면 캠핑을 하며 승마와 골프를 체험할 수 있다. 본래 골프장인 삼원레저타운은 여름을 맞아 골프장 잔디를 캠핑장으로 개방했으며 캠핑 초보자들을 위해 4인용 거실형 텐트와 테이블, 버너와 취사도구 등 기본 장비를 모두 대여하는 글램핑도 준비했다. 또 인근에 해미읍성과 해미순교성지, 서산버드랜드가 위치해 서산여행을 즐길 수도 있다.

◆한반도의 중심에 서다!

한반도의 중심 충북 충주에서는 다양한 레포츠를 만끽할 수 있다. 탄금호 수상 레포츠 레저체험 아카데미에서는 ▲카약 ▲둥둥바이크 ▲드래곤보트 ▲딩기요트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성 자연휴양림의 충주행복숲체험원에서는 초록 숲을 헤치며 올라가는 모노레일과 목공예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게다가 오토캠핑장과 글램핑장을 갖춘 햇살아래체험농장은 귀여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공예 체험과 농산물 수확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뗏목 타고 피라미를 잡아라!

경남 사천에서는 뜨거운 태양을 잊을 만큼 신나게 놀 수 있다. 먼저 곤양면 비봉내마을에서는 냇가에서 뗏목을 타고 다슬기를 줍고 피라미를 잡는 동시에 대숲 산책과 대나무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사남면 바리안마을에서는 맑은 개울에서 피라미를 잡고 삼베체험관에서 삼베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으며 초량다슬기마을은 농사체험을 준비했다.

경남 사천 비봉내마을 뗏목타기 체험. /한국관광공사 제공

◆맑은 공기 마시며 힐링을!

전북 완주는 맑고 깨끗한 자연과 더불어 체험활동을 하기 좋은 마을이 많다. 모악산 남쪽 자락에 있는 안덕마을은 자연에 머무르면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건강·힐링 체험 마을로 유명하다. 덕암에너지자립마을은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녹색 에너지를 체험하는 곳으로 화암사와 위봉사가 있어 여유 있는 여행이 가능하다. 또 우리 고유의 종이인 한지를 배우고 체험하는 대승한지마을과 삼례문화예술촌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이외에도 관광공사는 ▲파주출판도시 ▲강원 태백 365세이프타운 ▲경북 영덕 차유어촌체험마을 ▲경기 가평 산내들체험마을 등을 8월 여행지로 소개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르네상스 서울 호텔, 웰렌 총지배인 선임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최근 호텔의 새로운 총지배인으로 마크 웰렌(사진)씨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출신의 웰렌 총지배인은 1995년 암스테르담 소재 인터콘티넨탈 호텔을 시작으로 싱가폴 리츠칼튼 호텔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또 JW 메리어트 중국 상해 호텔과 르네상스 뭄바이(인도) 등에서는 오프닝 멤버로 참여하기도 했다.

웰렌 총지배인은 “오랜 경험을 가진 직원들과 전통이 있는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다. 르네상스 서울 호텔만의 따뜻하고 세심한 서비스로 시장에서의 호텔 인지도와 입지를 더욱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돼지고기 구입, 국내산↓ 수입산↑

삼겹살 줄고 목살 증가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2분기에는 국산 돼지고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1분기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원장 노경상)에서 조사한 2014년 2분기 소비자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000명 중 최근 구입한 돼지고기의 원산지가 국내산 돈육이었던 사람은 총 2371명(79.0%)로 1분기 대비 0.8%p 감소했다. 반면 전체 수입돈육의 경우 629명(21.0%)으로 0.9%p 증가했다.

국내산 돼지고기의 구입량이 다소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산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상반기 모돈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돼지설사병이 유행하는 등 공급이 줄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홈플러스의 수입삼겹살 판매 사진.

또 소비자 선호부위의 경우 삼겹살은 1969명(65.6%)로 1분기에 비해 0.7%p 줄었고 목살과 앞다리살은 각각 700명(23.3%)과 227명(7.6%)으로 1.3%p, 0.1%p씩 약간 상승했다.

소비자들의 심리가 가격이 높은 삼겹살을 대신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목살을 구입하거나 저지방 부위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해운대는 지금 “주류 마케팅 열전”

팝업바 프로모션 등 다양…이벤트도 풍성

주류업계 최대 대목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주류 회사들의 마케팅 활동이 치열하다. 특히 해마다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피서객이 몰리는 국내 최대의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주류 기업들에게는 제품을 광범위하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장소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올해 주류업계의 해운대 마케팅 특징은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팝업바를 통한 프로모션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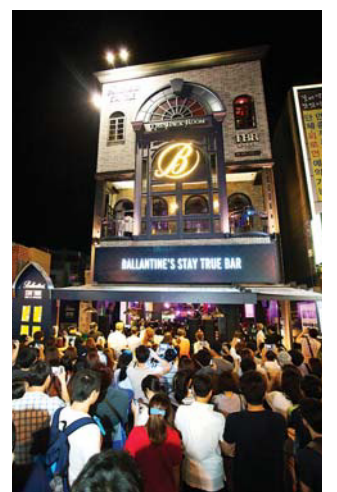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발렌타인’은 내달 16일까지 해운대구 구남로의 라운지바 ‘더백룸’에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바’를 운영한다. 스타 셰프 김신과 바텐터 피터와의 색다른 협업을 통해 탄생시킨 지중해풍의 유러피안 퓨전 다이닝과 다채로운 위스키 칵테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일명 아이스크림 맥주로 유명한 ‘기린 이치방 프로즌 나마’를 경험할 수 있는 ‘기린 이치방 가든’을 내달 18일까지 해운대구 ‘퍼지네이블’에 개설했다. ‘맥주는 재미있다’는 콘셉트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이벤트를 할 예정이다.

오비맥주의 카프리도 내달 23일까지 해운대 해수욕장 거리의 생맥주 전문점 ‘써스데이 파티’에 국내 유명 아티스트와 협업한 제품들로 장식한 팝업 스토어를 열고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롯데아사히주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아사히 수퍼드라이 엑스트라 콜드 바’를 서울 강남점과 부산 해운대에서도 운영한다. 부산점에서는 ‘시원한 오이중독’ ‘한우 타타키’ ‘카쿠니 버거’ 등 부산의 더운 여름 날씨에도 잘 어울리는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황금빛 맥주 필스너 우르켈도 8월 21일까지 해운대 게코스 1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연다. ‘하나의 맥주, 두 가지 맛’의 콘셉트로 100% 거품으로만 즐기는 ‘밀코 맥주’와 35㎜의 맥주거품으로 즐기는 ‘크리스피 맥주’를 선보인다.

데킬라 브랜드인 ‘호세쿠엘보’도 8월 중순까지 해운대 해수욕장 관광안내소 옆 광장에 임시 매장을 연다. 오후 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멕시코의 뜨거운 정열을 담은 ‘호세쿠엘보 에스페샬 실버’의 시그니쳐 칵테일 ‘실버 마가리타’를 비롯해 향긋한 마가리타와 시원한 얼음의 조화가 돋보이는 ‘마가리타 슬러쉬’,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호세쿠엘보 샷’ 등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정영일기자 prms@

발렌타인의 ‘스테이 트루 바’ 오픈 행사(위)와 ‘호세쿠엘보’ 해운대 팝업스토어. /발렌타인·호세쿠엘보 제공

기자들만 아는
숨겨진 속 **이야기!**

같이 볼래?

용감한 NEWS
충격!
[밀착취재] 신동엽
알고보니, '헐'!
톱스타 A양이 궁금해?
궁금하면!

특별기자회견
용감한 기자들

매주 **수요일 밤 11시** E채널

신동엽 | 홍석천 | 김태현 | 김정민 | 레이디제인

31일엔 '31DAY' 사이즈업 혜택

오늘 하루 패밀리 사이즈 아이스크림 구매 시 하프갤런 사이즈로 업그레이드 제공

"31일엔 31DAY를 즐기세요!"

배스킨라빈스가 7월 31일, 패밀리 사이즈 아이스크림 구매 시 하프갤런 사이즈로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31DAY' 행사를 벌인다.

배스킨라빈스의 '31DAY'는 5가지 맛을 골라 먹을 수 있는 패밀리 사이즈 아이스크림 구매 때 6가지 맛을 선택할 수 있는 하프갤런 사이즈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사이즈 업 혜택을 제공한다.

패밀리 사이즈 권장소비자가격인 1만9500원에 하프갤런 사이즈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하프갤런 사이즈 권장소비자가격 2만3500원)

배스킨라빈스 전국 매장에서 현금처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해피포인트' 카드를 소지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패밀리 데이'의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

행사 당일에는 1인당 총 3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행사 참여 시 해피포인트 적립 및 타 쿠폰, 타 행사, 제휴할인 중복 참여는 안 된다. 모바일교환권(패밀리·금액권)은 사용 가능하나 합산사용과 차액 환불은 할 수 없다. (일부 점포 제외)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31Day'는 31일이 있는 달에 진행되는 배스킨라빈스의 대표 행사로 꾸준히 저희 브랜드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을 위해 혜택을 드리고 있다. 오늘도 많은 고객들이 배스킨라빈스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강강술래, '열대야 극복 이벤트'

전 매장 맥주 1+1, 왕양념갈비·술래양념 등 2+1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무더위에 지친 고객들을 위해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열대야 극복 덤 증정 이벤트'를 8월 10일까지 벌인다.

행사기간 동안 상계점은 강강양념·술래양념·한돈양념·왕양념갈비, 신림점은 술래양념구이, 홍대점은 한돈양념·돼지양념·술래양념·생고기한판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로 제공하는 2+1 행사를 연다. 특히 신림점은 술래양념구이 2+1 행사와 함께 주문한 사람 수만큼 냉면을 준다. 늘봄농원점은 좀 더 이른 오후 8시30분부터 강강양념·술래양념·왕양념갈비·한돈양념·돼지양념 2+1 행사를 진행한다. 또 전 매장에서는 행사기간 뉴하이트 맥주를 한 병 시키면 한 병을 더 주는 '맥주 1+1 행사'도 함께 실시한다.

또 8월 10일까지 전 매장과 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바캉스세트를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행복세트(한우불고기1kg+돼지양념1kg)와 사랑세트(한우불고기1kg+LA갈비900g)는 4만원, 정성플러스세트(한돈양념1kg+돼지양념1kg)는 4만5000원, 실속플러스세트(한우불고기1kg+한돈양념1kg)는 4만8000원에 판다. 왕양념갈비(2대·560g)와 술래양념(8대·520g), 한우불고기(1kg)로 구성된 어메이징세트도 8만5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5종 세트 모두 택배비 3000원을 추가하면 휴가지까지 배송해준다.(도서산간 별도 문의)

이와 함께 전 매장에서 가공식품 전 품목을 40% 할인 판매한다. 갈비맛쇠고기육포(6봉)는 2만1600원, 한우사골곰탕 소용량세트(350㎖·5팩·10인분) 1만8900원, 대용량세트(800㎖·5팩·15인분)는 3만24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유통업계, 추석선물 예약판매

'이른 추석'에 작년보다 1~2주 일찍 시작

38년 만에 찾아 온 이른 추석을 맞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작년보다 1~2주 일찍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에 돌입했다.

먼저 롯데백화점은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추석 선물세트를 예약판매한다. 청과·정육·견과류·건강상품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10개 전점에서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를 한다. 작년보다 품목을 20% 늘린 150개로 정했다. 이 기간에 선물세트를 사면 정상가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내달 8일부터 21일 전국 13개 점포에서 '2014년 추석 선물 예약 할인전'을 연다. 한우·굴비·과일 등의 세트 상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갤러리아백화점은 내달 4일 명품관 식품관인 고메이494를 시작으로 8일 수원점·센터시티·타임월드점이, 12일 진주점이 추석선물세트 예약판매에 들어간다.

AK플라자는 추석선물 예약판매를 지난 25일 분당·평택점, 28일 구로본점에서 시작했고 수원점은 내달 4일부터 한다. 선물세트 품목을 지난 설 명절 때보다 약 10% 늘렸다.

/롯데백화점 제공

대형마트 업체들도 예약 판매 대열에 합류했다. 이마트도 내달 1일부터 24일까지 예약판매를 통해 8대 신용카드로 구매할 때 할인 품목 87가지, 단체선물할인 21개 품목, 신선 진품명품 10개 품목 등 총 118개 상품을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예년보다 11일 앞당겨 대형유통업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지난 14일부터 전국 139개 점포와 익스프레스 등에서 예약판매를 한다. 8월 24일까지 품목별로 50만원 이상 구매 때 20~50%까지 할인하고 추가로 제휴 카드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증정한다.

롯데마트는 이미 지난 18일부터 전국 108개 점포와 롯데마트몰에서 추석 대표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벌이고 있다. 이 행사는 8월 23일까지 제휴 신용카드로 예약 구매시 최대 30% 할인과 금액대별로 최대 50만원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정영일기자

"5년, 10년 후에도 아이돌로 남고 싶어"

MBC '트라이앵글' 끝내고 JYJ로 돌아온 김재중

올해로 데뷔 10년차를 맞은 김재중(28)의 이름 앞엔 이제 아이돌 가수보단 배우라는 수식어가 더 자연스럽다. 29일 종영한 MBC 월화드라마 '트라이앵글'에서 그는 강원도 카지노 판을 떠돌던 양아치 허영달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을 알게 된 후 복수를 계획하는 장동철로 변신하며 연기 합격점을 받았다.

◆ 허영달·장동철을 떠나 보내며

이번 작품을 통해 연기력 논란에서 벗어난 그는 스스로를 "지금은 아슬아슬한 커트라인에 놓여진 상태"라고 말했다.

"많이 아쉬워요.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일찍 끝난 느낌이에요. 그래도 이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허영달의 '양아치스러움'을 표현하려고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랑 '사생결단'을 봤는데 감독님께서 그래도 명색이 주연배우고 또 나중에 다른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데 너무 양(아치)스럽다고 말리시더군요(웃음)."

'트라이앵글'은 김재중과 임시완 두 명의 아이돌을 주연배우로 캐스팅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일명 '연기돌'로서 긴 호흡의 드라마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분명 큰 부담이었을 것.

"시완이와 친해서 연기할 때 정말 편했어요. 드라마 상에서 대립하기도 했는데 친해서 그런지 불편한 느낌 없이 연기할 수 있었어요. 물론 주연 배우로서 작품에 아쉬움은 남지만요."

13세 연상의 김혜은(김여사 역)과의 과감한 애정신에 대해서 그는 "어색함은 전혀 없었다"며 "뭐든지 시키는대로 다 하겠단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속 여사장 역의 혜은 누나 이미지가 워낙 강렬해서 '트라이앵글' 김 여사를 여사장이라고 느끼고 연기했어요. 그리고 매너가 참 좋아요. 키스신 전에 가글을 여섯 번씩이나 하시던데(웃음)."

◆ 배우로서 한 뼘 성장

그에게 '트라이앵글'은 큰 도전이었다. 첫 드라마 주연이자 가장 긴 호흡의 작품이었다. 이번 작품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그는 연기뿐만 아니라 작품에 임하는 태도에서도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SBS 수목드라마 '쓰리데이즈'에 출연한 박유천의 연기를 "5만점"이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의 연기 평가엔 박했다.

"첫 주연작 부담은 컸지만 많은 것 배웠다"
음악 활동은 있는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연기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방송에서 보여지는 연기 말고 다른 부분만 보자면 (스스로에게) 90점을 주고 싶어요. 드라마 제작 환경이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특히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죠. 급박하게 촬영장 준비하고 연기하고 편집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웃으면서 연기하려고 노력했어요. 배우들은 자기 장면 아니면 잠깐 쉴 수 있지만 스태프들은 계속 일하잖아요. 다들 힘든데 짜증내고 스트레스 주는 배우가 아니라 웃음을 주는 배우가 되려고 했어요."

◆ 그래도 JYJ의 김재중

그는 드라마 종영과 함께 JYJ 활동을 재개했다. 가수 활동이 배우로서 걸림돌이 될 법도 하지만 그는 "5년, 10년 뒤에도 여전히 아이돌로 불리면 좋겠다"며 "아이돌 수식어는 완전 땡큐"라고 웃으며 말했다. 가요계 최정상 아이돌로 군림했던 그는 현재 가수와 배우 중 어떤 부분에 무게를 좀 더 싣고 있을까.

"앞으로는 배우 쪽이 아닐까요. 연기 쪽에 무게를 둔다는 말은 제가 아직 가수 활동만큼 (배우 일이) 자연스럽지 않고 배워야 할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을 싣는다면 연기겠죠."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JYJ의 멤버 김재중이다.

"(배우에서 가수로) 스위치 바꾸는 게 힘들었어요. 연기할 땐 눈빛 하나, 표정 하나가 섬세하게 표현되는데 무대 위에선 큰 동작을 취해야하니까 힘들더군요. 지금은 가수 모드예요. JYJ가 각자 개인 활동을 하다가 3년 만에 앨범을 발표해요. 유천이랑 준수랑 '엄청나게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맞느냐'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그건 아니더군요. 저희 모습 있는 그대로 힘을 빼고 편안한 음악을 하기로 했죠. 그 느낌도 새롭고 좋더군요. JYJ의 음악은 이렇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이미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편안함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단발머리 '왜이래' 활동 재개

걸그룹 단발머리(사진)가 디지털 싱글 '섬머 리패키지'를 발매하고 후속곡 활동에 나선다.

이들은 데뷔 앨범 '더 퍼스트 싱글 앨범'의 수록곡들을 새로 다듬은 디지털 싱글 '섬머 리패키지'를 오는 31일 각종 음원 사이트에 발표하고 본격적인 후속곡 활동을 펼친다. 단발머리는 데뷔 전부터 '크레용팝 동생 그룹'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이번 리패키지 앨범의 타이틀곡은 첫 번째 싱글 앨범 수록곡인 '왜이래'의 섬머 에디션 버전이다. '왜이래'는 단발머리의 데뷔 타이틀곡 '노 웨이'와 함께 팬으로 부터 가장 많은 리퀘스트를 받았던 곡이다. '노 웨이'가 섹시 콘셉트 곡인 반면 '왜이래'는 단발머리의 발랄하고 깜찍한 귀여운 여동생 같은 이미지를 극대화시킨 곡이다.

일렉 기타의 중독성 있는 프레이즈와 상큼한 느낌의 스트링이 만들어 내는 인트로, 여기에 톡톡 튀는 멜로디에 어울리는 풋풋한 사랑에 대한 소녀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가사가 돋보인다.

/양성운기자

클래지콰이.

레드벨벳.

8월 가요계 신구 조화 주목

클래지콰이·레드벨벳·위너 활동 예고

8월 첫째 날부터 가요계가 선후배의 신곡 발표로 떠들썩하다.

그룹 클래지콰이(클래지 호란 알렉스)와 SM엔터테인먼트가 야심차게 선보인 신인 걸그룹 레드벨벳, YG엔터테인먼트 신인 그룹 위너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클래지콰이는 다음달 1일 새 디지털 싱글 '매들리'를 공개한다. '매들리'는 지난 4일 공개된 '러브 세틀라이트'와는 또 다른 느낌의 신곡이다. 독보적 감각의 사운드 메이커 DJ 클래지와 매력적인 두 보컬 알렉스, 호란의 시너지를 느낄 수 있는 리드미컬한 곡이다. 다음달 말에는 데뷔 10주년을 맞아 정규 6집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슬기, 아이린, 웬디, 조이 등 4명의 멤버로 구성된 SM의 신인 걸그룹 레드벨벳도 데뷔 무대를 갖는다.

레드벨벳은 이날 KBS '뮤직뱅크'를 시작으로 2일 MBC '쇼! 음악중심', 3일 SBS '인기가요' 등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데뷔곡 '행복'을 부르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레드벨벳의 데뷔곡 '행복'은 강렬한 신스 사운드와 아프리칸 느낌의 트라이벌 비트가 잘 어우러진 생동감 넘치는 어반 유로 팝 장르의 곡이다. 랩과 노래를 넘나드는 보컬과 다양하게 변화하는 곡의 구성이 듣는 재미를 한층 배가시킨다.

지난 7일 공식 데뷔를 알린 위너도 같은 날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그간 멤버들의 다채로운 모습을 담은 티저 무비를 통해 매력을 뽐내온 위너는 이날 티저 영상 말미에 '2014. 8. 1 그랜드 런치'라는 문구를 넣어 위너의 데뷔일을 공개한 상황이다.

데뷔일로 정한 다음달 1일 신곡 공개 여부는 아직 베일에 싸여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팬들과 소통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HOT PHOTO

한승연, 걸그룹의 성숙한 매력 카라의 한승연이 베테랑 걸그룹의 성숙한 매력을 드러냈다. 다음달 18일 발매될 미니 6집 '데이 & 나이트'의 콘셉트 이미지에서 그는 '데이'를 설정으로 시스루룩의 톱과 숏팬츠 차림의 화보를 선보였다. 평소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와는 상반된 여성미로 눈길을 끈다. '데이' 버전 이미지는 '소녀의 늦여름'을 주제로 멤버 4명의 로맨틱한 모습을 담았다. /유순호기자 suno@

미스틱89 음악 페스티벌 매진

가수 겸 대표 프로듀서 윤종신이 음악 팬의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다.

윤종신이 수장으로 있는 미스틱89이 주최하는 음악 페스티벌 '멜로디 포레스트 캠프'의 블라인드 티켓인 '미스터리 티켓'이 오픈 10초 만에 매진됐다.

미스틱89이 주최하는 멜로디 포레스트 캠프의 미스터리 티켓은 라인업 공개 전 판매하는 블라인드 티켓이다. 9월 20일, 21일 정가 12만1000원의 양일권을 5만5000원으로 선착순 300장을 판매해 음악팬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미스틱89이 주최하는 첫 페스티벌이라는 점과 파격적인 가격에 29일 오후 2시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치열한 예매 경쟁이 벌어졌다.

미스틱89 측은 매진된 미스터리 티켓에 이어 다음달 7~11일 사전 할인 티켓인 '리미티트 티켓'을, 12일 공식 티켓인 '멜로디 티켓'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판매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멜로디 포레스트 캠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http://www.facebook.com/MelodyForestCam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성운기자

매주 목 밤 11시 tvN / 8월 7일 첫방송

조보아 | 온주완 | 송재림 | 박지수 | 진희경 | 안길강 | 김민교 | 김재화 | 김슬기 | 남주혁 | 이선규 | 한소영 | 연출 백승룡

드라마 '짝수 사랑법' 눈에 띄네…

불륜·질투 사각관계… 솔직함 설레는 둘 만의 사랑

둘 아니면 넷이다. 안방 짝수 사랑이 눈에 띈다. 삼각 관계보다는 사각 로맨스나 주인공 둘만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SBS 월화극 '유혹'과 KBS2 월화극 '트로트의 연인', 수목극 '조선 총잡이'는 네 남녀의 사랑을 보여 준다. '유혹'의 최지우·권상우·이정진·박하선은 사랑과 불륜의 아슬한 경계에 있다. 유세영(최지우)과 강민우(이정진)는 차석훈(권상우)·나홍주(박하선) 부부에게 관심이 많다. 부부는 현재 별거 중이고 유세영·차석훈, 강민우·나홍주는 가까워지고 있다.

'트로트의 연인' 정은지·지현우·신성록·이세영은 서로를 질투하며 관계를 형성한다. 작품은 장준현(지현우)의 기억상실로 2막을 시작했다. 박수인(이세영)은 상황을 이용해 장준현과 거짓 사랑을 하며 조근우(신성록)도 최춘희(정은지)를 안타까워하지만 이 기회에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 지난 12회(29일)는 장준현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라는 말로 마무리돼 이들의 사랑에 기대감을 높였다.

'조선총잡이'의 사각 로맨스는 짝사랑에서 비롯된다. 이준기·남상미의 사랑을 중심으로 전혜빈은 이준기, 한주완은 남상미를 연모한다. 복수를 위해 일본인 한조로 정체를 숨긴 박윤강(이준기)과 그의 존재를 알아챈 정수인(남상미)의 사랑은 애절하다. 또 시청자는 일본인 한조를 바라보는 최혜원(전혜빈)과 박윤강을 잊지 못하는 정수인의 곁을 지키는 김호경(한주완)을 안타까워한다.

SBS 월화극 '유혹'·KBS2 '트로트의 연인'·KBS2 수목극 '조선총잡이'·MBC '운명처럼 널 사랑해'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둘의 사랑에 집중하는 작품도 있다. SBS 수목극 '괜찮아 사랑이야'(이하 '괜사')·MBC 수목극 '운명처럼 널 사랑해'(이하 '운널사'). 지난 23일 첫 방송된 '괜사'는 조인성·공효진의 연애를 담아 낸다. 티격태격하지만 감정 표현에 솔직한 장재열(조인성)·지해수(공효진)의 모습에 젊은 시청자가 공감하고 있다.

'운명처럼 널 사랑해' 장혁과 장나라는 속도위반 후 사랑의 감정을 느껴 열애 중이다. 김미영(장나라)의 곁엔 다니엘(최진혁)이 있지만 둘은 어릴 때 헤어진 남매임이 암시되고 있다. 이건(장혁)은 연인 강세라(왕지원)에게 결혼 사실을 고백하며 관계를 정리했다. 김미영과 이건은 임신으로 맺어졌지만 새로 시작하는 연인의 감정을 연기하며 극의 설렘을 더하고 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박은빈 '비밀의 문' 출연

한석규·이제훈과 호흡… 김유정과 대립

배우 박은빈(사진)이 SBS 새 월화극 '비밀의 문'에 출연한다. 한석규(영조 역), 이제훈(사도세자 역)과 연기 호흡을 맞추며 김유정(서지담 역)과는 대립한다.

박은빈은 작품에서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연기한다. 미모와 지성, 사람을 움직이는 지혜를 가진 인물이다.

그는 1998년 SBS 드라마 '백야 3.98'로 데뷔했다. 이후 청순하고 단아한 외모와 깊이 있는 연기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난해 드라마 '구암 허준'에선 허준(김주혁) 부인 다희 역으로 여인의 매력을 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명성황후' '사도' '왕의 여자' '태왕사신기' '선덕여왕' '계백' 등 사극에 출연한 경험이 많다.

'비밀의 문'은 강력한 왕권을 지향했던 영조와 신분의 귀천이 없는 세상을 주창했던 사도세자의 부자 간 대립을 담는다. 여기에 의궤 관련 살인 사건이라는 궁중 미스터리를 더해 역사를 재해석한다. '유혹'의 후속 작으로 9월 중순 방송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제2의 공효진' 류혜영 씨제스 계약

충무로의 신예 배우 류혜영(사진)이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30일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배우 류혜영이 한 식구가 됐다. 류혜영은 데뷔 후 연극·단편영화부터 다양한 무대에서 실력을 다져 온 충무로 차세대 주역으로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혜영은 2007년 단편영화 '여고생이다'로 데뷔했으며 '미성년' '숲' '마침내 날이 샌다' 등의 작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다. 2012년에는 단편 '졸업여행'에서 주연 유나 역을 맡아 제6회 상록수 다문화 국제단편영화제 여자연기상을 수상했다. 2013년 개봉한 장편영화 '잉투기'에서는 욕구타파 격투소녀 영자 역으로 관객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류혜영은 다양한 작품에서 자유롭게 캐릭터를 소화하는 능력을 보이며 '제2의 공효진'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한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는 최민식, 설경구, 이정재, JYJ(김재중·박유천·김준수), 이범수, 박주미, 박성웅, 곽도원, 라미란, 송새벽, 강혜정, 송지효, 거미, 정선아, 박유환, 김무영, 진혁 등이 소속돼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

초록뱀미디어 '삼총사' 제작 공급

53억원에 CJ E&M과 계약

초록뱀미디어가 CJ E&M과 tvN 새 일요드라마 '삼총사'(사진)의 제작 공급 계약을 53억4000만원에 체결했다.

'삼총사'는 회당 5억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된 초대형 블록버스터로 한 시즌당 12회씩 총 3개 시즌이 제작될 예정이다. 또 '인현왕후의 남자'(2012), '나인: 아홉 번의 시간여행'(2013)의 김병수 PD와 송재정 작가가 의기투합한 세 번째 작품이자 '나인'의 히어로 이진욱이 함께하는 두 번째 작품으로 드라마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알렉상드르 뒤마의 동명 소설을 기반으로 한 '삼총사'는 조선 인조시대를 배경으로 한양에서 무과에 도전하는 강원도의 가난한 양반가 출신 박달향(정용화)이 소현세자(이진욱)와 그의 호위무사 허승포(양동근)·안민서(정해인) 등 '삼총사'를 만나 조선과 명-청 교체기로 혼란스러웠던 중국을 오가며 펼치는 액션 로맨스 활극이다.

초록뱀미디어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소설 '삼총사'의 이야기와 조선과 중국이라는 동양적인 배경, 한류 스타 캐스팅 등 국내외 시청자들을 모두 사로잡을 수 있는 볼거리로 동시간대 케이블 시청률 1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록뱀미디어는 앞서 CJ E&M과의 계약을 통해 tvN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생초리' '인현왕후의 남자' '나인: 아홉 번의 시간 여행' 등을 공급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

개성 만점 캐릭터들의 향연 '눈길'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코믹스 속 슈퍼히어로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마블 스튜디오의 야심찬 기획이다. '아이언맨'에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슈퍼히어로들이 총출동하는 '어벤저스'를 기점으로 전 세계 영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리즈로 자리 잡았다. '아이언맨3' '토르: 다크 월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로 이어진 흥행 열기가 그 인기를 잘 보여준다.

영웅으로 거듭나는 우주의 무법자 이야기를 그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내년 '어벤저스2'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 마블 스튜디오가 올해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이전에 등장한 적 없었던 새로운 캐릭터들의 이야기라는 점 때문에 화제성은 낮은 편이다.

황홀한 영상·마블 특유의 유머 담아

그러나 개봉 이후에는 영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 것이 분명하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 못지않은 슈퍼히어로들의 유쾌한 모험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블 스튜디오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영화화한 것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세계관을 우주로 확장하겠다는 의도다. '토르' 시리즈에서 잠시 등장했던 우주 속 세계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광활한 우주를 무대로 한 영상이 황홀하다. 코믹스와 마블 영화의 팬이라면 '어벤저스'와 '토르: 다크 월드'의 쿠키 영상에서 등장했던 타노스와 콜렉터의 등장이 반가울 것이다. 드라마 '에이전트 오브 실드'와 연계점이 될 수 있는 설정도 등장해 흥미롭다.

그러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개성 만점 캐릭터들의 향연이다. 지구에서 납치돼 우주의 무법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칭 '스타로드' 피터 퀼(크리스 프렛)을 비롯해 암살자 가모라(조샐다나), 파이터 드랙스(데이브 바티스타), 그리고 현상금 사냥꾼인 로켓(브래들리 쿠퍼)과 그루트(빈 디젤)는 외모만큼이나 독창적인 개성을 드러낸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한데 뭉친 이들 다섯 명이 각자가 지닌 결핍을 이해하며 '은하의 수호자'로 거듭나는 과정은 유쾌하면서 감동적이다.

마블 영화의 전매특허로 자리 잡은 허를 찌르는 유머도 여전하다. 영화 내내 흘러나오는 올드팝 노래들도 흥겨움을 더한다. 지구를 넘어 우주로 무대를 넓히겠다는 마블 스튜디오의 의도는 충분히 성공적이다. '슬리더' '슈퍼' 등 재기발랄한 B급 장르영화를 연출한 제임스 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31일 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엠마 스톤, 우디 앨런의 새 뮤즈

긍정 에너지·밝은 미소로 캐스팅

할리우드 배우 엠마 스톤(사진)이 우디 앨런 감독의 새로운 뮤즈가 됐다. 엠마 스톤은 다음달 21일 개봉하는 '매직 인 더 문라이트'에서 엉뚱한 심령술사 소피 역을 맡았다.

우디 앨런 감독은 스칼렛 요한슨, 페넬로페 크루즈, 나오미 왓츠, 마리옹 꼬띠아르, 엘렌 페이지, 케이트 블란쳇 등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배우들과 꾸준히 작업해왔다. 신작 '매직 인 더 문라이트'에서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로 전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엠마 스톤을 캐스팅해 영화계의 화제가 됐다.

우디 앨런 감독은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엠마 스톤이 누구인지도, 어떤 작품에 출연했는지도 몰랐다"며 캐스팅 비화를 털어놨다. 우연히 보게 된 TV에 등장한 엠마 스톤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밝은 미소, 인상적인 연기에 끌려 자연스럽게 캐스팅을 했다는 후문이다.

'매직 인 더 문라이트'는 1920년대 남부 프랑스를 배경으로 유럽 최고의 마술사 스탠리와 심령술사 소피의 로맨스를 그린 영화. 소피는 엉뚱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엠마 스톤과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캐릭터다. 촬영장에서도 엠마 스톤은 소피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차세대 할리우드 대표 여배우다운 면모를 보였다. 현재는 우디 앨런 감독의 차기작에도 캐스팅돼 현재 촬영 중이다. /장병호기자

메간 폭스 이번엔 열혈 여기자

"똑 부러지는 성격 캐릭터와 조화"… 극찬

할리우드 섹시 스타로 이름을 알린 메간 폭스(사진)가 영화 '닌자터틀'을 통해 열혈 여기자로 변신한다.

'닌자터틀'은 범죄가 난무하는 뉴욕을 구하기 위한 닌자터틀 사총사 레오나르도, 도나텔로, 라파엘, 미켈란젤로의 활약을 그린 영화. 인기 코믹스 '닌자 거북이'를 실사 영화로 만들었다.

메간 폭스는 극중 방송국 기자 에이프릴 오닐 역을 맡았다. 낚시성

기사를 주로 쓰지만 기자로서의 사명감만큼은 누구 못지않은 인물로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닌자터틀과 함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이다.

메간 폭스는 "몇 년 전부터 '닌자 거북이'를 원작으로 한 실사 영화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서 제작사에 이메일을 여러 통 보냈다"며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에이프릴 오닐의 파트너인 카메라맨 배논 펜윅을 연기한 배우 윌 아넷도 "메간 폭스는 아주 똑똑하고 똑 부러지는 여자다. 그런 점이 에이프릴 오닐의 캐릭터와 잘 맞아 떨어진다"며 극찬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마이클 베이 감독이 제작에 참여한 '닌자터틀'은 다음달 28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새로운 강동원 모습 보여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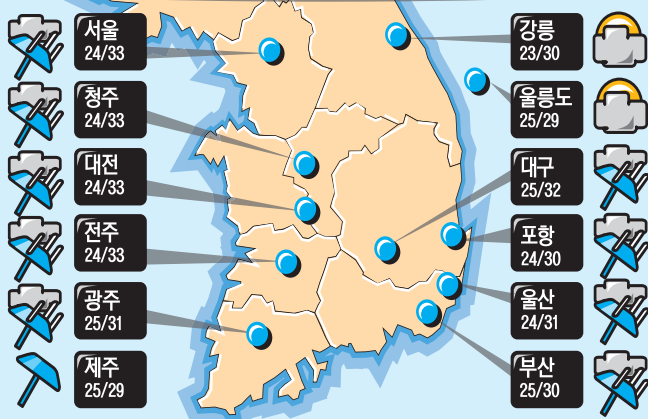
'두근두근 내 인생'서 소탈한 아빠 변신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의 이재용 감독이 배우 강동원(사진)을 아빠 역으로 캐스팅한 이유를 밝혔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열일곱 나이에 자식을 낳은 어린 부모와 열일곱을 앞두고 여든 살의 신체 나이가 된 세상에서 가장 늙은 아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강동원은 서른세 살의 어린 아빠인 대수 역을 맡아 '군도: 민란의 시대'에서와는 또 다른 연기 변신을 선보였다.

이재용 감독은 "강동원은 스타이면서 세련되고 도회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껏 보여주지 않았던 그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가 가진 감정과 대수가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동원이라는 배우에게서 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궁금증을 유발하고 싶었다"고 캐스팅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작품에서 강동원은 기존의 세련된 이미지에서 탈피해 소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기했다. 수수한 모습의 외적인 변신은 물론 다혈질에 철부지 같은 남자지만 아픈 아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듬직한 아빠의 모습으로 웃음과 공감을 자아낸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김애란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으로 강동원, 송혜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오는 9월3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체중이 증가할수록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소 규칙적인 식습관을 통해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복부비만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5		
8				6	5	3		7
					2			
	1				8		9	
	6			7			2	
	5		3				4	
			7					
2		5	9	4				8
		7				9		

7		1				2	8	
			7		8			
				5		7		
5			2				3	
		6	4		1	9		
	4				9			7
		8		6				
			9		3			
	3	9				4		1

스도쿠 정답

3	4	1	8	9	7	5	6	2
8	2	9	4	6	5	3	1	7
5	7	6	1	3	2	4	8	9
4	1	3	6	2	8	7	9	5
9	6	8	5	7	4	1	2	3
7	5	2	3	1	9	8	4	6
6	9	4	7	8	3	2	5	1
2	3	5	9	4	1	6	7	8
1	8	7	2	5	6	9	3	4

7	5	1	6	9	4	2	8	3
9	2	3	7	1	8	5	4	6
8	6	4	3	5	2	7	1	9
5	9	7	2	8	6	1	3	4
3	8	6	4	7	1	9	2	5
1	4	2	5	3	9	8	6	7
4	7	8	1	6	5	3	9	2
2	1	5	9	4	3	6	7	8
6	3	9	8	2	7	4	5	1

문제 제공=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네덜란드에는 왜 더치커피가 없을까?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모양만 붕어일 뿐이다. 요즘 유행하는 더치(Dutch)커피는 네덜란드식이다. 이름은 그렇다. 하지만 정작 네덜란드 사람들은 더치커피가 무엇인지 모른다.

더치커피는 차게 마신다. 주로 얼음을 넣어 마시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비슷하지만 따지고 보면 근본부터 차이가 있다.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가 바탕이다. 커피 원두에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순간적으로 통과시켜 원액을 추출한다. 여기에 물을 타서 희석시키면 아메리카노, 그리고 얼음을 넣어 차갑게 마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반면 더치커피는 다른 커피와 달리 곱게 간 커피 원두에 상온의 차가운 물을 천천히 통과시켜 커피 원액을 추출한다.

아메리카노와는 추출 방법이 다르니 맛에도 차이가 있고 성분 또한 같지 않다. 찬물로 내렸기 때문에 카페인의 함량과 산도가 낮다고 한다. 하루 종일 추출하기에 원두 특유의 향을 느낄 수 있고 추출 과정에서 숙성이 되기에 맛도 다양하다고 주장하는데 미각이 특별히 발달한 사람들의 말인 듯싶다. 어쨌든 값은 일반 커피에 비해 더 비싸다.

더치커피는 네덜란드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다. 네덜란드는 커피강국이었다. 특별히 커피가 맛있거나 커피 원두의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커피 생산대국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식민지였던 네덜란드 식민지에 대규모 커피농장을 만들어 커피무역으로 돈을 벌었다.

더치커피 역시 이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선박이 커피 원두를 본국으로 실어 나를 때 선원들이 수시로 뜨거운 물을 끓일 수 없어 찬물로 커피를 내린 것이 시초라는 것이다.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왜 더치커피를 모를까?

더치커피는 일본에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디에도 근거는 없지만 최초로 찬물로 커피를 내린 사람이 네덜란드 선원일 수는 있다. 하지만 더치커피를 만들어 널리 퍼트린 것은 일본이다. 네덜란드에서 왜 더치커피냐고 되묻는 이유다. /음식문화평론가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10년간 무늬만 부부, 방법 없을까요
사주 탓, 마음비우고 살수밖에 없어

Q 광형합 남자 12월 4일 음력 오전7시 전후
여자 6월 1일 음력

우리부부는 동거와 혼인식하고 생활하기 거의 10년간 소 닭 보듯이 살고 있습니다. 서로 힘들게 왜 사는지 나도 모르겠고 이혼은 쉽지 않고 한 지붕에서 서로 보살피며 지내야 되는 데 답답합니다. 얼굴도 안 보려고 하니 대화도 없고 메모지와 문자만 오고갑니다. 와이프가 하혈이 엄청 심하고 수술2~3번하고 악성빈혈에 부신기능까지 있어 신경이 날카롭고 접근조차 못하네요. 나는 남편으로서 잘하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내 얼굴을 안보겠다 하니 무슨 방법이 있는지요.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불교에서 부부가 만나는 것은 2000번 윤회해서 만나는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현재 부인을 만나서 어려움 속에 지내는 것이 모두 내 사주 탓이라고 보면 속편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나 대인관계는 만남으로부터 운명이 시작 됩니다. 사주용어로 겁재(劫財:나와 동급의 오행)에 배우자가 있으면 잘해 주어도 공연히 신경질을 내게 되고 좋은 말을 해도 짜증을 부리게 됩니다. 그것이 귀하의 사주 안에 있으니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돼 있는 것이므로 누구를 탓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나 원인을 내안에서 찾아보십시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하여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한 지붕아래서 살면서 남만도 못하게 지내는 쇼윈드 부부라든가가 면 부부가 의외로 많은데 남 보기에는 화목한 부부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런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것도 운명이고 이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인은 곡각살(曲脚殺)로 신경통으로 수족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서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아픕니다. 대화도 없이 지내지만 그래도 귀하 사주에 재성(財星: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부인을 나타냄)이 왕지(旺地)에 있고 귀하에게 부인은 천을 귀인의 상으로 부인의 내조를 받는 셈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 하고나서 불행하다고 고통을 짓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지요. 숙명적인 인연이라고 생각 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살수밖에 사주 상담을 여러 번 올려도 뾰족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31일 (음 7월 5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떠난 버스는 빨리 잊어라. **60년생** 욕심 부리면 귀찮은 일만 생긴다. **72년생** 인생은 빗나가는 게 정상이니 낙담 말라. **84년생** 돈만 쫓는 사냥개가 되면 불행해진다.

49년생 집안에 웃음꽃이 핀다. **61년생** 못마땅해도 배우자의 청은 들어주라. **73년생** 민감한 일이라도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무방하다. **85년생** 뜻밖의 소개팅 기대하라.

50년생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지는 법~. **62년생** 거듭 좋은 일에 입이 찢어진다. **74년생** 고집을 부릴수록 손해니 귀 열어라. **86년생** 귀인을 만난 꿈을 만들어간다.

51년생 고정관념 버려야 새길 열린다. **63년생** 욕심 부려서 생고생 자초 말라. **75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우연히 듣는다. **87년생** 남 비판 전에 자신부터 점검하라.

52년생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마라. **64년생** 문서 일은 미루는 게 좋다. **76년생** 내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88년생** 악조건서 선전에 박수 쏟아진다.

53년생 계획한 일은 시간이 필요하다. **65년생** 허울뿐인 감투는 사양할 것. **77년생** 최선을 다하면 괜찮은 동지가 나타난다. **89년생** 연인의 응원에 유쾌~ 상쾌~.

42년생 명분에 얽매이지 말라. **54년생** 자녀가 기분 좋은 소식 선물한다. **66년생** 고민은 수다 떨 듯 가볍게 풀어라. **78년생**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으니 최선 다하라.

43년생 믿었던 사람이 서운하게 한다. **55년생** 자신의 장점은 적극 알려라. **67년생** 호랑이가 숲을 뛰쳐나온 격이다. **79년생** 확인 안 된 소문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

44년생 화가 나도 참는 게 상책~. **56년생** 늙어갈수록 뒷모습이 폼 나야 한다. **68년생** 성공이 자랑스러울수록 겸손할 것. **80년생** 상대가 약하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45년생 마음에 다 드는 일은 없다. **57년생**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니 경계할 것. **69년생** 주변 의견 무시한 독주는 제동 걸린다. **81년생** 연인의 닫힌 마음을 열어라.

46년생 충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58년생** 고민은 눈 녹듯 사라진다. **70년생** 몰리는 종목에 투자는 재고할 것. **82년생** 친구의 경사에 덩달아 기분 좋다.

47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 **59년생** 골치 아픈 일이 해결되어 야호~. **71년생** 모임에 가면 반가운 벗 만난다. **83년생** 오전엔 좋지 않으나 오후엔 대박~.

손흥민 존재감 빛났다

수차례 위협적 슛 불구 골은 못넣어…팀, FC서울에 승리

'손세이셔널' 손흥민이 뛰고 있는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엘 04 레버쿠젠이 한국 K리그 FC 서울과의 친선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레버쿠젠은 30일 오후 7시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LG전자 초청 레버쿠젠 한국 투어 경기에서 FC 서울을 상대로 2골을 넣으며 승리를 거뒀다.

이날 손흥민은 평소 팀 내 포지션인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경기 초반부터 기선 제압에 나섰다. 손흥민은 전반 3분 왼쪽 패널티지역을 돌파한 뒤 크로스를 시도해 FC 서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전반 6분 벨라라비는 손흥민의 스루패스를 받아 위협적인 슛을 날렸다.

FC서울 골키퍼 유상훈은 전반 19분 벨라라비의 중거리 슛과 23분 키슬링의 패널티 지역 슈팅 선방에 성공했지만 전반 24분 벨라라비가 패널티아크에서 찬 중거리슛을 허용하며 1점을 내줬다. 레버쿠젠은 후반 14분 키슬링이 패널티아크에서 발리슛으로 추가골을 터뜨리며 2-0으로 승기를 잡았다.

후반 29분 손흥민은 패널티지역에서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키슬링에게 패스를 전달하는 등 경기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풀타임 출전한 손흥민은 "K리그를 꿈꾸던 선수로서 K리그 팀과 붙어본 게 영광스럽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 "국가대표가 아닌 레버쿠젠 유니폼을 입고 왔는데 많은 팬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K리그 경기장에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최우수선수의 영예는 발리골을 성공한 키슬링과 슈퍼세이브를 연발한 유상훈에게 돌아갔다.

한편 류승우는 이날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지난 28일 류승우는 독일 아헨에서 열린 알레마니아 아헨과의 친선경기에서 0-1로 뒤지고 있던 후반 35분 동점골을 넣었다. 하지만 류승우는 3분 뒤 상대 선수의 도발에 거친 행동으로 대응해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했다. 이에 독일축구협회(DFB)는 류승우의 행동을 '비신사적 행위'로 간주하고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30일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레버쿠젠 한국 투어 FC서울-바이엘 04 레버쿠젠의 경기에서 레버쿠젠의 손흥민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질 바꾼' 맨유, 인터 밀란 잡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인터밀란을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다.

맨유는 30일 미국 메릴랜드주 랜드로버의 페덱스 필드에서 열린 2014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기네스컵) A조 2차전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 승부차기에서 5-3으로 승리해 승점 2점을 추가했다. 이로써 맨유는 승점 5점으로 A조 단독 선두를, 인터밀란은 승점 3점으로 2위에 올랐다.

/AP 뉴시스

판 할 감독 스리백 시스템 효과

이날 루이스 판 할 감독은 지난 로마전에 이어 또 다시 3-5-2(또는 3-4-1-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웨인 루니, 대니 웰백이 투톱에 서고 후안 마타가 그 뒤를 받쳤다. 중앙에는 안데르 에레라, 대런 플래처가 포진하고 좌우 윙백은 안토니오 발렌시아, 애슐리 영이 맡았다. 스리백은 필 존스, 크리스 스몰링, 조니 에반스가 호흡을 맞췄다. 골문은 안데르스 린데가르트가 지켰다. 이에 맞선 인터밀란은 맨유 출신 '철벽' 네마냐 비디치가 수비를 이끌었다. 인터밀란 역시 맨유처럼 스리백을 사용했다.

경기는 맨유가 주도했지만 골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존스의 헤딩은 상대 골키퍼의 선방쇼에 가로막혔고 이후 마타, 루니 등의 날카로운 슈팅도 골문을 살짝 벗어났다. 후반 들어 맨유와 인터밀란 모두 대거 교체를 통해 변화를 줬다. 맨유는 윌프레드 자하, 루이스 나니, 카가와 신지로 공격진을 바꿨다. 왼쪽 윙백도 루크 쇼가 투입됐다.

그러나 후반에도 골은 터지지 않았다. 양 팀은 공격과 수비를 주고받으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문전에서의 세밀함이 떨어졌다. 맨유는 후반 막판 치차리토까지 투입하며 승리를 노렸지만 골에 실패했고 경기는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승부차기는 맨유가 승리했다. 인터밀란의 네 번째 키커 마르코 안드레올리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면서 고개를 떨궜다. 반면 맨유는 영, 치차리토, 톰 클레버리, 카가와에 이어 다섯 번째 키커로 나선 플래처까지 모두 성공하며 인터밀란에 승리를 거뒀다. /양성운기자

류현진 내셔널리그 다승왕 찬스

내달 2일 약체 컵스 상대 13승 도전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4연승과 시즌 13승을 향해 마운드에 선다.

MLB닷컴에 따르면 류현진은 다음달 2일 오전 11시1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14일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승리한 후 3경기 연속 승리를 거둔 류현진은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리그 다승왕 경쟁에 뛰어든다.

12승(5패)을 기록 중인 류현진은 내셔널리그 다승 1위 애덤 웨인라이트(13승·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1승차로 클레이턴 커쇼(12승 2패)·잭 그레인키(12승6패) 등과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류현진은 28일 샌프란시스코 원정경기에서 6이닝 6피안타 3실점으로 시즌 12승째를 거둔 뒤 4일 휴식 후 다시 마운드에 오른다. 5일 휴식 후 등판을 선호하지만 올스타 휴식기 등을 통해 충분히 체력을 보충해 뒀다. 더욱이 컵스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최하위 팀이라 승수를 더하기 좋은 기회다.

컵스는 29일까지 팀 타율 0.238로 이 부문 메이저리그 전체 30개 팀 중 29위에 머물러 있다. 규정 타석을 채운 선수 중 타율 3할 이상을 기록 중인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다. 컵스의 간판 타자는 29일 현재 타율 0.283, 25홈런, 58타점을 올린 앤서니 리조다.

류현진은 지난해 8월 3일 단 한 차례 컵스를 상대해 5⅓이닝 동안 11안타를 내줬지만 2실점으로 막으며 승리를 챙겼다. 당시 류현진에게 3타수 2안타를 친 다윈 바니는 최근 다저스로 이적했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30일

■ 목동

팀	1-3	4-6	7-9	계
한화	001	100	000	2
넥센	220	200	00X	6

△ 승리투수 = 문성현(5승 3패) △ 패전투수 = 김혁민(4패 1세이브) △ 홈런 = 이택근 14호(1회2점) 문우람 5호(2회1점·이상 넥센) 김회성 6호(3회1점) 최진행 7호(4회1점·이상 한화)

■ 대구

팀	1-3	4-6	7-9	계
L G	510	000	002	8
삼성	150	000	012	9

△승리투수= 임창용(5승2패21세이브) △패전투수= 봉중근(1승4패20세이브) △홈런= 이병규 10호(1회3점) 손주인 2호(9회2점, 이상 LG)

■ 사직

팀	1-3	4-6	7-9	계
두산	000	000	010	1
롯데	100	020	00X	3

△ 승리투수 = 장원준(8승 5패) △ 세이브투수 = 김승회(1패 15세이브) △ 패전투수 = 유희관(7승 7패)

■ 마산

팀	1-3	4-6	7-9	계
KIA	002	020	000	4
N C	000	111	20X	5

△ 승리투수 = 원종현(2승 2패) △ 세이브투수 = 김진성(2승 2패 15세이브) △ 패전투수 = 심동섭(5패) △ 홈런 = 나성범 23호(4회1점) 모창민 15호(6회1점·이상 NC) 김주찬 8호(5회2점·KIA)

기성용 친정팀 복귀 승리 견인

스완지시티 평가전 출전…장기계약 눈도장

친정팀으로 돌아간 기성용(25·스완지시티·사진)이 승리를 이끌었다.

기성용이 소속된 스완지시티는 30일 영국 런던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엑스터시티(4부 리그)와의 평가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기성용은 전반 30분 교체 투입됐다. 알렉스 브레이의 부상으로 갑자기 투입됐지만 공격진을 효율적으로 조율하며 상대를 압박했다.

그라운드를 밟은 지 1분 만에 바페팀비 고미스의 첫 골이 나왔다. 후반 33분에는 기성용과 윌프리드 보니가 공을 주고받으며 찬스를 만들자 조시 시한이 한 골을 더 추가했다.

셀틱스에서 스완지시티로 이적한 기성용은 지난 시즌 선덜랜드로 이적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스완지시티와의 계약 기간은 1년이 남았다. 기성용은 애스턴빌라, 선덜랜드 등 복수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스완지시티는 기성용과 장기계약을 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유순호기자 suno@